

2015.5.19.~5.22.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세계 교육 포럼 2015

2015 세계교육포럼은 전 세계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룰 세계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회의입니다.

참 석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장관급 대표, UN, 세계은행그룹 등
국제기구 수장, NGO, 전문가 등 1,500여 명
* 본 포럼은 유네스코의 초청에 의한 등록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참여안내 | 본행사 |
전체회의, 주제별 토론, 분과회의, 고위급 세션, 기관방문
* 전체회의 및 주제별 토론은 2015 세계교육포럼 홈페이지
(www.wef2015.go.kr)에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부대행사 |
사전행사(유관기관 국제포럼), 상설전시(세계시민교육 및 ICT 활용교육) 등
* 옥외에서 진행되는 상설전시는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2015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www.wef2015.go.kr)
T 02-3775-2027 F 02-3775-3985
E-mail wef2015@moe.go.kr



공동주최
협력기관



주관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 05

굿모닝
Good Morning
INCHEON 인천
2015 05



기억하세요
자랑스러운



오월소식

정지용 _ 1927

오동나무 꽃으로 불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림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근 소곤거리는구나.

모조롭만에 날러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설거리나니.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쾌활한 오월 벡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당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 갈가나.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아르키러간
찌그만 이 페스탈로치야, 피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 오는 듯 머얼리 우는 올간 소리...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바로북, 북큐브, 예스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인천을 걷다 강화 고려산 진달래	06
강화 나들길 '고려궁 성곽길' 탐방	08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인천 문인들의 흔적을 찾아	14
니하오 유커 송도센트럴공원에서 보내는 하루	20
중국을 만나다 칭다오	26
포커스 2015 세계교육포럼(5.19~5.22)	29
내 일 내 길 남사당놀이 전수교육자 지운하 명인	32
까치발로 본 인천 ㉮ 백운역 → (옛)부평조병창	34
CULTURE INFO	38
NEWS BRIEF	42
COUNCIL NEWS	46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50
INFO BOX	52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야'	57
모닝 커피 한잔 이호진 인천시 청소년 웹진 'MOO' 기자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5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
(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성·김성환·김상덕·유창
호(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CONTENTS 2015. 05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7



06



09



20



COVER STORY

싱그러운 오월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모든 가정에 속속들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햇살이 부부가 많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맡아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어른신들이 손주에게 쏟는 사랑은 전폭적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고 어른신들은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대 간에 따뜻한 이해와 보살핌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동력입니다.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그 답변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이용 안내 앱 ‘120 인천’, SNS @120incheon,
전화 및 문자 032-120, 팩스 032-440-0400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경인아라뱃길을 둘러보고 자연생태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
니다. 주변에 있는 맛집을 추천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시민님. 인천시 서구청(562-5301)에 전화하시거나, 구청 웹사이트
(www.seo.incheon.kr)에서 아라뱃길 주변 관광 안내 및 맛집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여행하세요.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 주차단속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소가 협소하다지만 인도 위까지
차를 대놓아 다니기 불편합니다. 가천대 후문 정류장 주변에도 주차된 차량들로 버스를
타기가 힘드네요.

↳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단속 팀이 업무를 재개하는 대로 곧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연수구 불법 주
정차 단속 업무는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진행되어, 바로 단속하
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지도와 인천 관광 지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받을 수 있
나요.

↳ 인천시 지도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구에 관련한 지도는 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관광지도는 시청 본관 5층에 있는 관광
진흥과를 방문하시면 즉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열차처럼 월미공원에서도 물범카가 다닌다지요. 월미도에 가려
고 합니다. 관련 연락처를 알려 주세요.

↳ 반갑습니다. 시민님. 월미공원에 가면 물범카를 타고 월미문화관, 전망대, 이만사
박물관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는 월미테마파크 마이랜드 765-
7503, 월미관광안내소 765-4169입니다.

서울 이태원에 삽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무의도와 석모도를 가고 싶습니다.

↳ 무의도는 잠진도선착장을 이용하며, 서울 이태원에서 222번, 2-1 버스를 타고 잠
진도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또 석모도는 외포리선착장을 이용, 3000번
과 31번 버스를 타고 외포리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인천에서 경기도 시흥시까지 이동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애 1, 2급 판정을 받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인천에서 시 인접 지역까지 목적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
항은 인천교통공사 콜센터로 1577-03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이기정(63, 중구 홍예문로)

자유공원 아래서 보낸 40여 년

충청도가 고향인 이기정님은 1978년 남편을 따라 인천으로 왔습니다. 사
방이 육지로 딱 막힌 곳에서 살다, 확 트인 바다를 처음 마주하였을 때의
감흥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인천에 와서는 산 좋고 물 좋은 중구 송학동
자유공원 아래 터를 잡고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다른 곳에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결론은 언제나 ‘이만
한 동네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남편이 정년퇴직한 후 인근 도시
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지금도, 부부는 여전히 자유공원 아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이 되어서야 인천 집으로 오는데, 마음
은 늘 인천으로 향해 있습니다. 고향이나 다름없는 인천에 대한 그리움은
‘굿모닝인천’을 보면서 달래집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자기 전에는
꼭 ‘굿모닝인천’을 보며 하루일과를 마무리 짓곤 합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만 갑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붉은 꽃봉우리

강화 고려산의 두견새는 얼마나 피 토해 울었을까.
몽골 말발굽을 피해 바다 건너 온 고려인들은
얼마나 목 놓아 울었을까. 온 산이 진분홍빛이다.
“우와, 어쩔”.
이곳에서 의성어는 이 한마디면 족하다.
너 나 할 것 없이 산행객들은 자신의
‘추억 저장매체’를 꺼내 들기에 바쁘다.
가장 디지털한 도구로 가장 아날로그한 풍경을 담는다.

글·사진 김민영 자유기교가

천년시간속으로 걷다

강화에는 무수한 시간의 층이 켜켜이 쌓여 있다.
비운의 왕이 머물던 고택에서 출발해,
고대 성곽에 오르고, 슬픔의 빛깔로 도배된 옛 궁궐터를 거닐다,
700여 년 세월을 비밀스레 품은 나무 아래서 깊은 숨을 내쉰다.
누구라도 걷고 싶게 만드는 계절에,
역사의 시간이 곳곳에 고인 그 길로, 걷고 또 걸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강화 땅을 걷는 것은 한민족의 오천 년 역사를 넘나드는 여정이다.
강화 깊숙이 들어갈수록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기나긴 역사가 흠뻑 배어 있다.
강화군청은 인천 관광주간을 맞아 '강화 나들길' 15코스인
고려궁지와 강화산성 일대를 '놀이 책'을 따라 둘러보는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두터운 책 속의 역사가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는 순간, 마음은 기나긴 역사의 발자취 속으로 성큼 다가선다.
햇살 좋은 날 두 손에 지도와 놀이 책을 들고,
강화 너른 땅 천년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PM 12:00 용흥궁



지도 들고, 왕이 살던 고택으로

고른 한낮 역사기행의 첫발은 한옥 관광안내소에서 내딛는다. 고아한 정취가 흐르는 옛 건물에 들어서면 오늘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지도와 놀이 책이 쥐어진다.

가장 먼저 다다른 곳은 용흥궁(龍興宮). 조선 25대 왕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인 열아홉 살 때까지 살던 집이다. 강화 무지렁이로 살다, 세도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32년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에게 강화는 유배의 땅이자 그 리움의 대상이었으리라. 용흥궁은 아담하지만 왕권에 걸맞은 기품과 위엄이 깃들어 있다. 원래는 초가집이었으나, 강화도령이 왕이 된 후인 1853년 강화 유수가 현재의 세 칸짜리 기와집으로 다시 지었다.

여행 메모 강화 한옥관광안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운영 시간 이후에는 관광안내전화 1330을 이용한다. 영어, 일어, 중국어로도 안내한다. 문의 한옥 관광안내소 933-3771
놀이 책 미션 용흥궁을 둘러본 후, 용흥궁 관리소 앞에서 첫 번째 스탬프 찍기.





PM 12:30 드라마 촬영지

추억이 일상으로 흐르는 동네

이제 구불구불 읍내 골목기행이 시작된다. 강화읍 관청리, 방실슈퍼, 동미 이발관, 동문 양장점... 이름도 정겨운 가게와 집들이 다다다닥 붙은 골목을 걷노라면 자꾸 달려를 들여다보며 낱자를 확인하게 된다.

이 동네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분 건, 드라마 '전설의 마녀'를 촬영하면서부터다. 가장 출세한 건 '서촌 세탁소'다. 이상철(55) 씨가 20여 년간 꾸려온 '럭키 세탁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번듯하게 다시 태어났다. 이참에 상호도 드라마 속 이름으로 바뀌 달았다. 길 건너편에는 드라마 세트장 '마법의 빵집'이 생겨났다. 한적하던 동네는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멀리서 외국인들이 찾아와 골목 구석구석을 걷기도 한다. 일상을 파고드는 관심이 귀찮을 법도 한데, 주민들은 "강화가 더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며 품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한다.

여행 메모 용흥궁과 철종이 강화도 처자 봉이와 뜻뉘는 사랑을 나누었던 '강화도령 첫 사랑길'에서도 드라마를 촬영했다.

놀이 책 미션 드라마 속 촬영장소 앞에서 인증 샷 찍어, 놀이 책에 추억으로 남기기.



PM 01:00 동문

백성의 눈물로 쌓아 나라 지킨, 강화산성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로 온 고려왕 고종은, 1232년 강화산성(사적 제132호)을 쌓았다. 성은 당초에 내성, 중성, 외성으로 견고했으나 현재는 내성만이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강화산성은 동서남북에 성문 4개가 있는데, 그 길을 둘러만 보아도 한민족 역사의 한줄기는 꿰뚫어 볼 수 있다.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강화산성은, 1259년 몽골과 화친(和親)을 맺는 조건으로 허물어졌다. 그 고통은 성벽을 쌓는 것보다 컸다. 역사서 '고려사'에는 당시 성을 허물던 백성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성을 쌓지 말았어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고 전해진다. 산성이 옛 모습을 찾은 것은 조선시대로, 허물어지고 다시 쌓기를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중에서 동문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의 공격을 받고 무너진 것을 2004년에 이르러 복원한 것이다.

놀이 책 미션 강화산성 동문 앞에서 두 번째 스탬프 찍기. 그리고 동문 천장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찾아보기. 정답은 용.



여행 속 여행 '이야기자전거' 타고 역사 속으로

따사로운 햇살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강화 고려궁 마을을 누벼보자. 해설사의 이야기를 따라 용흥궁, 성공회 강화성당, 동문, 고려궁지 일대를 둘러보면 역사여행의 의미가 깊어진다. '강화 이야기자전거'는 용흥궁 공원 주차장 앞에서 타며, 가격은 성인 2인 기준 코스 1이 1만원, 코스 2가 2만원이다. 운영 시간은 동절기(10월~3월)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4월~9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고려궁 마을 일대를 둘러보는 데 약 15분 정도 걸린다.

코스 1 용흥궁 → 성공회 강화성당 → 드라마 '전설의 마녀' 촬영지 → 동문 → 고려궁지 | **코스 2** 고려궁지 → 뱃길 나들길 → 북문 → 북장대(하차 후 걸어서 이동)

문의 강화 이야기투어 934-2628, www.storytour.co.kr

PM 01:30 성공회 강화성당

팔작지붕 위, 햇살 비춘 십자가

동문에서 다시 용흥궁 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이 땅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건물이 나타난다. 이층 기와집에 십자가를 세운 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이다. 빗바랜 태극무늬가 그려진 빗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옥으로 지어진 본채 건물이 나타난다. 단청으로 처리된 서까래, 팔작지붕에 올라앉은 용머리, 기둥마다 걸린 내리 쓴 주련(柱聯), 들보 끝의 연꽃무늬... 사찰의 대웅전인가, 착각이 드는 순간 지붕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에 시선이 머문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서양 기독교 문명과 한국 전통문화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대한성공회 초대 주교인 코프 주교와 사제들은 이 땅의 전통을 끌어안고, 1900년 첫 대한성공회 성당을 세웠다. 1910년대까지 강화지역 선교의 중심이었던 성당 언덕에선, 오늘날도 여전히 기도소리가 울려 퍼진다. 성당 너머 단출하게 둘러진 돌담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선다.

여행 메모 성공회 강화성당에선 교인들이 여전히 미사를 드리니 조용히 둘러보아야 한다. 성당 한편에는 사찰에 매달아 놓을 법한 동종이 있다. 행사가 있을 때나 미사 시간에 타종을 한다. 문의 성공회 강화성당 934-6171

PM 02:00 고려궁지

슬픔의 빛깔로 도배된 옛 궁터

발걸음은 이제 고려궁지로 향한다. 승평문(昇平門)이라고 쓴 문으로 들어서면, 시간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고종은 1232년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로 도읍을 옮긴다. 부랴부랴 궁궐을 짓고 왕이 머무르던 곳이 고려궁지다. 이 안에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았을 고려왕조의 비운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궁터 안으로 들어서서는 사실 낙심했다. 39년간 몽골에 줄기차게 맞섰던 기상은 어디로 간 것일까. 성은 고려가 1270년 몽골과 강화(講和)를 맺고 개성으로 돌아간 후 대부분 무너지거나 불타 없어져 버렸다. 마른 푸서리 위 ‘사적 제 133호 고려궁지’라고 새겨진 비석만이 이곳이 그 옛날 고려의 궁궐터라는 사실을 애처롭게 읊고 있었다. 궁이 있던 자리에는 조선시대의 관아인 동헌과 이방청, 그리고 왕실의 도서관 ‘외규장각’이 들어서 있다. 이마저도 병자호란과 병인양요 때 소실된 것을 복원한 것으로, 역사의 상처를 안으로 깊이 부여안고 있다.

여행 메모 고려궁지의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매표소에서 강화 고려궁지,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을 저렴하게 둘러보는 ‘일괄 관광권’을 판매한다. 문의 고려궁지 930-7078

PM 02:30 700년 된 은행나무, 북문

꽃비 맞으며 북문에 오르다

궁궐 담장 밖 마을 입구에는 700살 먹은 은행나무가 수호신처럼 서 있다. 이 아름드리 나무는 고려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굴곡진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았으리라. 북문으로 가는 길은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 하얀 꽃물결을 이룬다. 바람이 일 때마다 후드득 떨어지는 꽃비를 맞으며 천년의 시간을 오른다. 그 길 끝에는 진송루(鎭松樓)라고 쓴 현판이 걸린 북문이 나온다. 처음 산성을 쌓을 때는 누(樓) 없이 암문으로 만들었다. 1783년 정조 때 문루를 지어 올렸다. 때마침 복원 공사 중이어서 곳곳에 놓인 지지대가 시야를 어지럽힌다. 이만 아니면 그림엽서에 고스란히 담아도 좋을 예쁜 풍경이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산성을 따라 북산 정상에 있는 북장대에 올라보자. 강화도의 너른 별판을 지나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북녘 땅까지 시야가 닿는다. 저기, 두 동강이 난 땅을 가로지르는 바다가, 욕심도 이념도 부질없다는 듯 햇살 아래 넘실거린다.



PM 03:00 서문, 연무당 옛터, 남문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

북문에서 서문으로 이르는 길에는 호젓한 산길이 이어진다.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소리뿐인 숲길을 지나, 성곽 길을 따라 서문에 다다른다. 이곳에는 가늠하기 힘든 뼈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다. 서문 건너편에는 강화유수부의 군사들이 훈련하던 연무당이 있었는데, 1876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단초가 된 강화도 조약이 여기서 체결됐다. 잡풀이 무성한 텅 빈 터에 ‘연무당 옛터’라고 새겨진 글씨가 역사의 상처를 아프게 증명한다. 다시 나들길을 따라 골목을 지나는 길, 고풍이 흐르는 고택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강화도 천석꾼 황국현의 가옥으로, 1947년 강화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집에 머물렀다. 이윽고 여정의 끝자락인 남문에 다다른다. 남문은 반드시 지켜야 할 문이었다. 몽골의 거센 침략으로부터도 끝까지 지켜냈던 이 문은, 결국 1636년 병자호란 때 함락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1876년에는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이 입성하면서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기나긴 역사의 시간을 건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어디선가 밀려드는 조팝나무 꽃향기가 쓰라린 역사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진다.

여행 메모 강화 향부자집 고택 창고가 있던 자리엔 ‘남문로 70’이라는 작은 찻집이 들어섰다. 대추, 솔잎, 유자 등 몸에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전통차가 5, 6천 원 선이다. 문의 남문로 7 933-9300.
놀이 책 미션 고택 마당에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놀이 책에 인증 샷을 붙여 본다. 남문 앞에서 스탬프를 찍고 역사여행을 마무리한다.

고려궁 성곽길 탐방 역사, 놀이로 즐기다

‘놀이 책 따라’ 역사탐방 한옥 관광안내소에서 입체 지도와 놀이 책을 받는다. → 3D 안경을 끼고 지도를 보면 성곽길이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 놀이 책과 지도에서 안내하는 코스를 따라 역사기행에 나선다. → 퀴즈를 풀고, 인증 스탬프를 찍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각 여행지마다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 → 마지막에 다시 관광안내소로 오면, 오늘 여행을 추억으로 남길 기념품을 주고 사진도 인화해 준다. 총거리는 11km로, 천천히 둘러보면 세 시간 정도 걸린다

코스 한옥 관광안내소 → 용흥궁 → 드라마 촬영지(마법의 뽕집, 서촌 세탁소) → 동문 → 성공회강화성당 → 고려궁지(외규장각) → 700년 된 은행나무 → 북문(※ 선택 경우 : 강화향교 및 은수물) → 서문 → 연무당 옛터 → 백범 김구 선생 방문 고택 → 남문(※ 선택 경우 : 강화풍물시장) → 강화버스터미널

문의 강화군 문화관광과 930-3561~3, 한옥 관광안내소(강화읍 남산길 14-1) 933-3771





북성포구, 월미도, 사리재... 인천은 문학의 무대였다

인천에는 문학의 꽃을 피운 문인들의 삶과 이야기가 도시 곳곳에 녹아 있다. 그들이 밤을 지새우며 창작활동에 몰입했던 장소, 태어난 집,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공간이 살아 숨 쉰다. 그러나 옛 문인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않은 않다. 세상이 바뀐 만큼 거리의 모습도 변했다. 옛 한옥들은 다세대주택이나 상가가 되기도 하고, 길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지번만이 문인들이 이곳에 거주했음을 증언한다. 공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문학을 고민하고 창작에 몰두했던 시간의 자취는 남아있다. 뭇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관찰하며 작품을 구상했던 문인들의 고고한 흔적을 따라가 보자.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자유사진가 일러스트 유사라



오정희 작가가 그의 작품 무대였던 차이나타운에서 포즈를 취했다.

오정희

‘중국인의 거리’ 유년시절의 기억, 창작 소재로

작가 오정희의 소설 ‘중국인 거리’는 그가 어린 시절 차이나타운 인근에 살았던 기억을 기반으로 쓰였다.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1955~1958) 약 4년간 인천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조양석유회사 인천지사로 발령받으면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작가는 인천에서 세 번 이사했다.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중구 중앙동 1가 19번지다.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포그시티’ 자리다. 지금은 3층의 높은 건물이지만 당시엔 단층건물이었다. 선생의 집 앞에는 1978년 철거된 중화루가 있었다. 중화루는 거리가 가까워 자주 애용했던 식당이었다. 지난 4월 19일 차이나타운에서 만난 오정희 작가는 어린 시절 차이나타운은 신비스러운 공간이었다고 기억했다. 주변에 미군을 상대하는 양공주들이 세 들어 살고 있었고, 중국인들이 사는 집은 항상 문이 닫혀 있었으며 한국인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회고한다. 양공주들과 동거하던 미군들은 항상 누런 봉투에 미제 물건을 가득 담아오곤 했다고 한다. 미제 물건에서 나는 색다른 냄새에 항상 끌렸고, 흑인도 이곳에서 처음 봤다고 했다.

소설에 나오는 맥아더 장군상이 있는 자유공원은 작가의 유일한 놀이터였다. 간혹 친구들과 대한제분까지 놀러가기도 했다. 당시엔 밀을 퍼 놓고 말렸는데, 그 밀을 몰래 훔쳐 먹으며 놀았다. 밀을 오래 씹다 보면 껌이 됐다고 한다.

오정희 작가에게 인천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다. 인천에서 보낸 유년기가 그의 감수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인천의 기억은 무궁무진한 창작의 소재가 되었다.

김동석, '해변의 시' '낙조'에는 인천의 기억이...

인천을 사랑했던 문인 김동석(1913~?)이 태어난 곳은 경기도 부천군 다주면 장의리다. 유명한 해장국집인 '평양옥' 인근으로 지금 남구 송의동 403번지 일대다. 이곳은 1902년 이전에 매립이 되었고, 러·일 전쟁 때 군 막사가 있어서 군수물자를 활발히 취급했던 지역이다. 1910년 이후엔 염전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김동석의 생가는 터만 남아있다. 김동석은 1921년 3월 가족과 함께 인천부 외리 75번지로 이사한 뒤, 이듬해 4월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교)에 입학했고, 1년 뒤 인천부 외리 134번지로 이사하는데, 두 곳 모두 찌리재였다. 인천부 외리 75번지는 배다리 사거리에 위치한 송월타월 옆 건물이고, 134번지는 배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추정된다. 신흠집은 찌리재 인근 경동 145번지였다. 김동석의 부친 직업이 '포목잡화상'이어서 조선 상권이 형성된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은 1942년까지 인천에 거주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상당수는 인천에서 썼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의 수필 '해변의 시' '낙조' '시계' '토끼' 등에는 아내와 함께 찾은 월미도, 어릴 적 찌리재에 대한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동석



김동석이 거주했던 집. 송월타월 옆 건물로 추정한다. 차로 뒤면에는 아담한 마을이 형성돼 있다.



고유섭 생가터로 알려진 동인천길병원 표지석도 같이 있다.

고유섭

미학의 대가 고유섭, '경인팔경' 등 남겨

우리나라 미학의 대가 고유섭(1905~1944) 선생의 집은 용동 큰우물 주변으로 동인천길 병원에 그의 표지석이 있다. 동인천길병원 자리가 그가 태어난 곳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관광해설사 장희숙 선생은, 성공회 100년사에 나오는 1893년 사진에 의하면 지금의 동인천길병원은 지대가 낮아 물이 드나들던 곳이어서 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언덕배기 부근을 고유섭 선생의 생가 터로 추정했다.

우현 고유섭 선생의 조부 고윤경의 직업은 상인이었다. 조부 덕분에 유복한 생활을 했지만, 생모와 이별, 서모와 불화, 잦은 병치레로 성장기는 불우했다. 그는 결혼 후 1931년 서울로 이사하면서 인천을 떠난다.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약 26년간 우현은 시와 산문 등 여러 편에서 1920년대 인천의 풍경을 담았다. '경인팔경(京仁八景)'이 대표적이다. 인천에서 서울의 학교까지 경인선 기차로 통학하면서 겪은 계절별, 지역별 풍경과 소회를 시조로 풀어낸 작품이다. 개성박물관장으로 재직하는 11년간 한국미술사 연구에 매진해 학문적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1941년 6월 장인 이흥선에게 빌린 4천 엔으로 고추장사를 시작하지만 실패했다. 그 충격으로 지병이었던 간경화가 악화되어 1944년 사망한다. 옥련동에 있는 인천시립 박물관에 가면 우현의 동상을 볼 수 있다.

함세덕

화평동 생가, 검은 기와에 연륜의 자취가 느껴져

인천출신 극작가 함세덕의 자취는 화평동에서 찾을 수 있다. 냉면거리로 유명한 화평동 455번지가 함세덕의 출생지다. 조부 함선지는 객주업에 종사했고 개항 무렵 조선인 객주회 등을 조직해 외국상인자본의 유입에 대응했다.

화평동의 함세덕 생가는 아직 남아있다. 함세덕의 생가를 자세히 보려고 옆집 건물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지붕의 기와가 집의 연륜을 말해준다. 처음 집을 지을 때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매우 큰 집이었을 것이다.

함세덕이 청소년기를 보낸 곳은 금곡동 14번지였다. 여기서 인천공립학교(창영초등학교), 인천도립상업학교(인천고)를 졸업했다. 인천도립상업학교에 다니던 시절(1929~1934) 인천부 용동으로 이사했다. 금곡동 14번지는 배다리 현책방거리다. 현재는 배다리 한미서적이 위치한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유명한 작품 '동승'은 1933년 여름 친구들과 금강산에 여행을 갔다가 고찰 마하연에서 본 사마승을 떠올리며 쓴 이야기다. '동승'에 나오는 가좌율은 인천 가좌동에서 비롯됐다. 이 밖에도 '신흠구리'의 먼우금(연수구 일대), 배다리(동구 금곡동), 고목의 소부리(우각리 창영동), 수문통(수문통, 송현동) 등의 지명은 모두 인천에서 딴 것이다. 그의 서정극 중 '해연'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세워진 팔미도를 배경으로 한 유일무이한 작품이다. 그는 우리 현대사에 억눌려 자취가 없어진 작가다. 친일의 오점에 월북 작가 낙인까지 찍혀 작품이 감춰졌기 때문이다.



〈동승〉함세덕
일명 '도념(道念)', 1939년도에 발표된 함세덕의 단막극.

함세덕이 청소년기를 보낸 금곡동 14번지. 지금 배다리 현책방거리 한미서점 일대다.



현 덕

화평동에서 남생이 집필, 북성포구가 창작의 무대

작가 현덕(1909~?)의 대표 작품 ‘남생이’는 인천항 주변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어린이 ‘노마’의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현덕은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인천과 가까운 대부도 당숙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숙 집안이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용강정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소년 ‘노마’가 등장하는 소설을 여러 편 창작했다.

현덕의 본명은 현경윤으로 ‘남생이’ ‘경칩’ 등의 소설을 집필했던 곳은 화평동 78번지로 알려져 있다. 이 집이 현덕의 고모네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덕이 살았던 용강정은 인천항 개항 전 인천부 다소면 선창리의 일부였다. 당시만 해도 인가가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현덕은 1930년대 고모 집에 머물면서 남생이를 집필했다. 장희숙 인천문화관광해설사는 현덕이 그린 남생이 주무대를 일제강점기까지 외국인 묘지가 위치했던 북성포구 일대로 추정했다. 이곳의 풍광이 남생이의 무대 묘사와 매우 흡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부두 노동자들의 주거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덕은 고모 집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북성포구 일대 부둣가로 노동을 하러 다녔을 것이다.

현덕의 고모 집으로 추정되는 화평동 78번지 집을 볼 기회를 얻었다. 현 거주자인 김진수(79)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준 덕분이다. 할아버지는 1989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데, 집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1914년에 지어진 11평의 작은 한옥은, 기와를 깔고 집안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것 말고는 옛날 구조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부엌은 부뚜막 형태 그대로였다. 할아버지는 불시에 찾아온 객들에게 1914년에 지었다는 건축증명서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 집이 인천을 대표하는 문인인 현덕이 살았던 곳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남생이〉현덕
소설 〈남생이〉는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던 작품이다. 주인공 어린이 ‘노마’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비애, 그리고 일제강점기 비참한 사회현실에서 겪는 가족 내 삶의 문제와 갈등을 어린 시점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



동구 금곡동 59번지에서 바라다본 주안염전 방향. 현히 보였던 주안염전이 지금은 아파트 때문에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인천 금곡동 집에서 찍은 박경리 선생 가족 사진(맨 왼쪽 박경리 선생, 남편, 딸, 아들, 친정어머니)

박 경 리

박경리 선생 ‘금곡동의 2년은 달콤했네’

현덕의 고모 집을 나와 송현동 수문동 골목의 비릿한 냄새를 맡으며 현재 중앙시장에 도착하면, 우리 문학의 거두 박경리 선생이 1948년 배다리에서 현책방을 했던 거리가 나온다. 중앙시장 맞은편의 원조 배다리시장이다. 당시 이곳은 일제가 패망한 뒤 버리고 간 물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보따리, 노점상의 좌판이 짝 깔렸다. 박경리 선생은 결혼 후 남편 김행도씨가 주안 염전의 관리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1948년 초부터 동구 금곡동 59번지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박경리 선생은 인천에서 보낸 2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책을 무척 좋아했던 박경리 선생은,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남기고 간 현책들을 읽으면서 문학적 감성을 쌓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박 선생에게 현책은 그야말로 보물이었다. 박경리 선생의 인천 거주 사실은, 배다리에서 현책방 ‘아벨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곽현숙 대표가 박 작가의 유고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를 읽다가 약력에 ‘인천시 동구 금곡동에서 2년간을 살았다’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박경리 선생이 살았다는 금곡동 59번지는 지번만 확인될 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 수 없다. 인천 세무소 뒤쪽 일대가 금곡동 59번지 일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금곡동 59번지 일대 골목길을 걷다보니 옛 염전에 깔았던 타일들이 골목 한쪽에 남아 있었다. 이곳에 염전공장 사택이 있었고, 박경리 선생도 여기에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엔 금곡동 59번지 고지대에서 주안 염전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고층아파트들이 시야를 가린다. 새색시 박경리 선생이 남편을 생각하며 주안염전을 수시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현덕이 살던 화평동 78번지에 현재 살고 있는 김진수 할아버지.



현덕이 살던 화평동 78번지의 집은 100년이 넘었다. 외관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내부는 오래된 한옥구조 그대로다.



바람도 머물다 가는 그곳 ‘송도센트럴공원’

만약 센트럴파크가 없었다면, 미국인들과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그토록 뉴욕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반짝이는 하이라이즈 빌딩숲 사이 분주함이 넘치는 첨단도시 한가운데, 초록으로 빛나는 송도센트럴공원.
이 안에서 한가로이 거닐거나, 수상택시에 몸을 싣고 유유자적하거나, 햇살 비추어 이드르르한 수평선을 그저 바라보거나.
어디든 마음 가는 곳에 머무르며 여행의 시간을 깊이 느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차로 단 십오 분 거리로,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들이 한국 여행길에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Sight 멋

동북아무역타워·G타워·트라이볼·오줌싸개&돌고래&지구촌의 얼굴 조형물

대륙의 시선도 사로잡는 ‘송도 스타일’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 대한 새로운 각인이다. 이 새롭고 번쩍번쩍한 도시는, 회색빛 공장지대와 오래된 포구에 머물러 있던 인천의 이미지를 단번에 바꾸어버렸다.

송도국제도시의 심장 국제업무단지 중심에는 센트럴공원이 푸르게 드리워져 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해수로를 따라 가면, 최첨단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이 어우러진 인천을 만난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외관이 돋보이는 건축물들이다. 하늘 높이 솟은 ‘동북아무역타워(NEAT Tower)’, ‘역셀(易 Shell)’ 구조의 ‘트라이볼(Triple+Bowl)’, 삼각형 아트리움이 건물 전체를 감싸 안은 ‘G타워’가 시선을 잡아챈다. 하나하나 독특한 개성이 살아 있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족족 작품이 된다.

G타워 앞에는 전 세계인들이 다양한 표정으로 공원을 내려다보고 있다. 120개 나라를 상징하는 탑들이 거대한 탑을 이룬 ‘지구촌의 얼굴’이다. 다리를 건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상방뇨를 하는 개구쟁이들을 만난다. 오줌싸개 삼형제 동상이다.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는 이 삼형제는, 벨기에의 상징이 된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처럼 공원의 명소가 됐다. 광장 앞에 있는 돌고래 조형물은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이다. 금방이라도 인천 바다로 미끄러지듯 헤엄쳐 세계의 바다로 나아갈 것만 같다.

POINT 1 트라이볼은 365일 공원과 전시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하늘(공항), 바다(항만), 땅(광역교통망)이 어우러진 인천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둠이 내리면 지구에 착륙한 UFO 같은 신비로운 자태로 오색찬란한 빛을 뿌린다. www.tribowl.kr 760-1014 **POINT 2** 동북아무역센터는 68층, 305m 높이로, 최근 롯데월드타워가 100층을 돌파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과 대우인터내셔널 본사가 있고, 65층 전망대에 오르면 송도국제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POINT 3** G타워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비롯해 GGGI 등 국제기구 사무국들이 동지를 튼 ‘작은 UN 빌딩’이다. 29층에 전망대 하늘정원이 있고, 33층 IFEZ 홍보관이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Activity 활력

수상 레저·수상 택시·자전거 타기

물길을 달리면, 스치는 바람조차 자유

공원 한가운데는 바다가 거대한 호수가 되어 흐른다. 송도센트럴공원은 바다를 품은 항구 도시라는 인천의 특색을 살려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으로 조성됐다. 바닷물을 공원으로 끌어들이면서 숭어, 우럭, 꽃게 등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덩달아 이사를 왔다. 잔잔하게 빛나는 '작은 바다'는 봐라만 봐도 좋을 예쁜 풍경을 선사하지만, 때론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 준다. 수상택시에 몸을 싣고 물길을 가로지르면, 또 다른 낯선 나라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에 젖는다. 중간 중간 아치형의 다리를 지나는 물길 1.8km는, 저마다 지닌 아름다움으로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함께 여행 온 가족, 친구와 카누나 카약을 타고 노를 저으며 운하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머무를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공원 내 잘 닦은 길을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도 좋다. 초록빛 세상 속을 싱싱 달리노라면, 얼굴에 스치는 바람조차 자유롭게 느껴진다.

POINT 공원 입구에 있는 이스트보트하우스에서 카누와 카약, 전기 보트,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카누와 카약은 세 명이 50분에 2만5천원, 전기로 가는 보트는 네 명이 30분에 3만5천원. 자전거는 30분에 1만원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수상 택시는 웨스트보트하우스에서 탄다. 운항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공원을 둘러보는 데 20여 분 걸린다. 문의 송도코마린 이스트보트하우스 070-4189-4609, 웨스트보트하우스 070-4237-4609

Taste 맛

보트하우스 레스토랑·한옥마을·커널워크



햇빛 아래 테라스에서, 차 한잔

공원에서 보내는 하루. 슬슬 시장기가 돌면 이스트보트하우스로 향하자. 레스토랑과 카페, 스낵바가 모여 있어 허기진 배를 채우고 미각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 보트하우스 2층에 있는 '썬 델리'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아담하지만 테라스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분위기 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요즘처럼 햇살 좋고 바람 좋은 계절에는 더 없이 좋다. 추천 메뉴는 파릇파릇한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 돈가스과 부드러운 면발과 생크림을 버무린 카르보나라 파스타. 그 옆에 '송 강정'에서도 간단히 허기를 채우기 좋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추기름으로 버무려 땅콩가루를 살살 뿌린 닭 강정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한옥마을에도 찻집과 한식당 등 일부 매장이 문을 열었다. 한옥마을은 '한반도를 산책하다'를 콘셉트로 센트럴공원 내에 등지를 뜬 예스럽고 정겨운 공간이다.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송도 커널워크에 입점한 유럽형 몰링 스트리트인 NC 큐브가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동으로 이뤄진 이곳엔, 수로를 따라 쇼핑매장 90여 곳과 식당, 카페 50여 곳이 줄지어 있다. 유럽의 감성을 담은 노천카페와 브런치 카페, 한식은 물론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곳곳에 있다. 그 맛에 반해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다.

POINT 1 카페 '썬 델리'에서는 스테이크, 파스타, 돈가스 등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한다. 돈가스와 파스타가 1만원대, 음료가 4,5천원대로 관광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의 썬 델리 070-4466-4608, 송 강정 070-4466-4609. **POINT 2** 커널워크에 있는 NC 큐브에는 길을 따라 노천 카페와 브런치 카페가 줄지어 있어 마치 유럽의 거리를 옮겨놓은 듯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의 NC 큐브, 커널워크점 723-6300

Relax 여유

사슴 공원·토끼 섬·사랑의 섬·해수욕탕·지압길·오션스코프

여행자의 마음에 '찐표'를 찍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다시는 못 올 것처럼 조바심을 내며 바빠 움직이던 여행길. 센트럴공원의 품에 안기어 잠시 쉬었다 가자. 드넓은 잔디 위 질게 드리워진 숲 그늘은 여행자의 마음까지도 선선히 덮어준다.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숨이 있는 진짜 여행을 즐기는 시간. 시야를 가득 메우는 파란 물과 초록 숲, 첨단 도시의 역설적인 어울림이 색다른 운치를 자아낸다. 공원 안에는 예쁜 사슴과 토끼들도 더불어 산다. 사슴 공원은 산책 정원을 거닐다보면 나타난다. 현재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길을 막아놓은 상태다. 아쉽지만 멀리서나마 맑은 눈망울의 사슴들이 뛰노는 모습을 눈에 담아 본다. 낯선 땅을 밟느라 피로가 쌓인 발은 이스트보트하우스에 있는 해수욕욕탕에서 풀어준다. 물길을 곁에 두고 난 지압길을 걸으며 다독여도 좋다. 여행길에 쌓인 피로가 나긋나긋 풀리고, 반질반질한 돌 위를 걷는 재미도 톡톡하다. '사랑의 섬'은 보트를 타야 다다를 수 있는 비밀스럽고 매력적인 공간이다.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자물쇠가 난간에 줄지어 있는 풍경이 프랑스 풍네프의 '예술의 다리'를 연상케 한다.



POINT 1 한낮의 빛이 소멸되어 갈 즈음엔 수로 끝에 있는 G타워 뒤편으로 달려가 보자. 전망대 '오션스코프(OceanScope)'에 서면, 노을 내린 바다 위 인천대교가 한 폭의 그림으로 곱게 피어난다. **POINT 2** '사랑의 섬'은 센트럴공원의 새로운 즐거찾기 명소다. 사랑의 증표인 자물쇠는 1만원으로 이스트보트하우스에서 구입한다.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보내면 1년 후에 도착하는 '느림보 우체통'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POINT 3** 이스트보트하우스에 있는 해수욕욕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tay 쉼

한옥 호텔 경원재 앰배서더

한옥의 하룻밤, 깊어가는 여행의 시간

달빛이 종이를 바른 창을 지나 방안으로 은은하게 들어온다. 바람결 따라 울리는 풍경소리가 조용히 귓가를 두드린다. 여행의 끝을, 한국의 멋이 흐르는 곳에서 마무리한다면 더 없이 완벽하리라. '경원재 앰배서더'는 단순히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끼며 몸과 마음을 누일 수 있는 한옥 호텔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로 호텔 그룹 앰배서더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센트럴공원 내에 있는 한옥마을에 문을 열었으며, 한옥 호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시대와 변화를 거슬러 지은 집은 견고하고 아름답다. 호텔 곳곳에는 국내 주요 무형문화재와 명장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스며있다. 전체 목공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최기영 대목장이 맡아 전통 한옥의 미를 재현했다. 옷질은 김성호 명장이 맡아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할 색감을 입혔다. 기와 잇기는 우리나라 유일의 변화장 이근복 선생이 기품 있고 우아한 곡선미를 살려 완성했다. 한편 센트럴공원 인근에는 경원재 앰배서더와 함께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쉼라톤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 베니키아 프리미어 송도 브릿지,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등의 호텔이 있다.

POINT 1 경원재 앰배서더는 로열 스위트룸 2채를 포함한 객실 30실과 한식당 한 곳 그리고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 경원루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전통문화를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원재 앰배서더 www.gyeongwonjae.com, www.ambatel.com, 729-1101



COURSE 이스트보트하우스(카누, 카약, 전기 충전 보트) → 산책 정원(지압길, 사슴 공원, 토끼 섬) → 조각 공원(지구촌의 얼굴) → 웨스트 보트하우스(수상택시) → 트라이볼 → 초지원(오줌싸개 삼형제 동상) → 한옥마을(경원재) → 테라스 정원(돌고래 조형물)

TRANSPORTATON 전철 이용 시 *경인전철 → 인천지하철 부평역(환승) → 센트럴파크역 * 공항철도 → 인천지하철 계양역(환승) → 센트럴파크역 **자가용 이용 시** 캔벤시아대로 우측 센트럴공원 주차장(주차요금 : 한 시간당 1천원, 하루 5천원, 문의 : 851-0477)

INFORMATION 위치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6(송도동) 센트럴공원 문의 인천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 721-4404

칭다오(靑島),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칭다오(靑島)는 해안선이 무려 730여 km에 달하고, 항만은 50개에 이르며, 바다에는 아름다운 섬 69개가 신비롭게 떠 있다. 그 덕분에 지난 2007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가운데 한 곳으로 칭다오가 선정되기도 했다.

제공 시 관광진흥과 정리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칭다오(靑島)는 중국 산둥반도 남쪽 해안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해양도시다.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에 비하면 역사 유적은 적지만, 아름답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중국 제일의 휴양지로 성장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칭다오는 해안선이 무려 730여 km에 달하고, 항만은 50개에 이르며, 바다에는 아름다운 섬 69개가 신비롭게 떠 있다. 그 덕분에 지난 2007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가운데 한 곳으로 칭다오가 선정되기도 했다.

빼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칭다오에는 다양한 축제와 레저가 발달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칭다오국제맥주축제다. 매년 8월에 열리는 축제는 '세계가 건배하는 무대', '중국의 카니발'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축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칭다오에는 청도해양축제, 모래사장문화축제, 벚꽃축제 등 다채롭고 매력 넘치는 축제들이 열려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칭다오는 특히 동서양의 문화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이는 1897년 독일군이 침입하고 이듬해 조계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도시 곳곳에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물들이 남아있어 작은 유럽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특히 서쪽 구시가지에 가면 해안가 일대의 건축물 지붕을 주황색으로 입히는 독일의 건축적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라오산(嶗山)도 칭다오가 품은 매력적인 관광요소 가운데 하나다. 흔히 '해상제일명산(海上第一名山)'이라 하는데, 중국에서 바다에 가장 가깝고 가장 높이 솟은 산이기 때문이다. 해발고도는 1천133m로 그리 높지 않지만 산세가 가파르고 자태가 웅장하다.

청도관광사이트 www.qdta.gov.cn



‘모두를 위한 교육’ 선언

인천에서 국제교육계의 최대 행사인 세계교육포럼이 열린다.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다. 세계교육포럼은 2000년 이후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5년 이후의 교육의제 수립을 모색한다. 세계교육포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총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전 세계 교육 수장, 장관, 국제기구 대표 1천5백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인천선언’, ‘인천실행계획’ 채택

2015 세계교육포럼의 진행은 전체회의, 주제별 토론, 분과회의, 고위 세션으로 구성된다. 전체회의는 총 5회 열리며 EPA 성과분석, 포스트 2015 교육의제를 논의한다. 주제별 토론은 EFA와 연계된 폭 넓은 교육 이슈에 대해 총 6개 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분과회의는 전체회의 전반부 및 주제별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총 10개 회의가 동시에 열리고, 고위 세션은 정상 및 장관급 대표들이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국제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이번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앞으로 15년간 국제교육의 방향성 및 실행방법을 담은 ‘인천선언’과 ‘인천실행계획(Incheon Framework for Action)’이 채택된다. 실행계획 채택을 위해 국제사회 교육계는 이미 2014년 5월 오만 무스캇에서 1개의 총괄목표와 7개의 세부목표를 담은 ‘무스캇선언’을 발표해 의제의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포스트 교육의제인 무스캇 선언의 7개 세부목표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기초교육(초등, 중등교육) ▷성인, 독해력, 수리력 ▷직업생활 지식·기술습득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습득 ▷교원 확보 ▷교육재정 등이 담겨 있다. 무스캇 선언은 포스트2015 개발목표 논의에 참여하는 다양한 UN기구에 소개되어 국제사회 교육계의 통합된 의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행사

	1일차 5.19일(화)	2일차 5.20일(수)	3일차 5.21일(목)	4일차 5.22일(금)
오전		전체회의 2 주제별 토론	분과회의 2 전체회의 4	기관 방문
	개회식	분과회의 1	전체회의 5	
오후	전체회의 1	전체회의3 (특별세션)	고급 세션 폐회식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1990년 태국 줌티엔에서 첫 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전제회의 중 한국교육 특별 세션을 통해 한국의 교육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게 된다. 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활용 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에 높은 위상과 사례를 소개하여 각국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게 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세계교육포럼의 중요성에 관련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교육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유엔은 교육에 대한 혜택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나는 어릴 때 교실이 없어 나무 아래에서 공부했다. 유엔이 지원한 교과서로 배움을 이어나갔다. 교과서 맨 뒤에 유엔과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지원으로 이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표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면서 “교과서가 없어 유엔의 지원으로 공부했던 가난한 소년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고 며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태국 줌티엔 세계교육회의를 계기로 출범, 유네스코 주도하에 범세계적인 기초 및 문해 교육 보급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 모든 사람이 나이, 성별, 계층, 지역 차별 없이 양질의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평등한 국제교육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부대행사·인천 교육현장 방문, 주요 명소 투어

프로그램	행사 내용	기간
나이트 투어	G타워(홍보관), 카별워크,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기관 방문 투어	인천의 다양한 교육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다문화학교, 국제교육을 지향하는 특목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성화고교, 올해부터 운영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학교, 교원양성 현장을 보여주는 교대 등이 코스에 포함 제1코스 : 인천한누리학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역사관 제2코스: 월미전통공원, 미추홀 전통음식연구원, 인천대교, 인천국제교, 제3코스 : 강남영상미디어고, 광성보, 제4코스 : 북인천여중, 경인교대·부설초, 경인아라뱃길	5월 22일
부대행사	‘1-세프를 찾아라’ (송도컨벤시아) - 학생, 일반인 참여 / 강화·웅진, 호텔 음식 전시 소규모 문화공연(송도컨벤시아 야외광장) - 전통국악음악에 현대악기를 더한 퓨전국악공연 - 밴드공연과 국악의 콜라베레이션, 재즈가 연주	5월 20일 5월 20일 5월 21일
전시	세계시민교육 전시회(송도컨벤시아 제육외전시장) - 세계 교육의 다양한 그림과 사진	5월 19~21일



소래습지생태공원. 아래 사진은 특성화고교인 강남영상미디어 고교



유네스코 Post-2015 교육의제(안)

총괄 목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 보장	
세부 목표	
	영유아 보육·교육 2030년까지, 최소 X%의 남녀아동이 최소 1년의 무료·의무적으로 초등 전 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영유아보육·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초등학교 입학에 준비하며, 이를 위해 성평등 및 취약계층에 집중함
	기초교육 2030년까지, 모든 남녀 아동이 최소 9년 양질의 의무 무료 기초교육 및 이와 관련된 학습 효과를 달성하며, 이를 위해 성평등 및 취약계층에 집중함
	성인 독해력, 수리력 2030년까지, 모든 청년과 최소 X%의 성인이 사회에 더 잘 참여하기 위해 충분한 문해력 및 수리력을 보유하고, 이를 위해 성평등 및 취약계층에 집중함
	직업생활지식·기술 습득 2030년까지, 최소 X%의 청년과 Y%의 성인이 제대로 된 일과 생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직능, 후기중등, 고등교육 및 훈련을 통해 달성하고, 이를 위해 성평등 및 취약계층에 집중함
	지식·기술·가치·태도 습득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지식, 기술, 가치, 그리고 태도를 습득함
	교원 확보 2030년까지, 모든 정부는 모든 학습자가 공인되고, 전문훈련을 받았으며, 동기가 부여되고, 양호한 지원을 받은 교사에게 교육받을 것을 보장함
	교육재정 2030년까지, 모든 국가는 GDP의 4~6% 또는 공공지출의 15~20%를 교육에 투자하고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집중하며, 교육을 위한 재정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취약국에 집중함

유랑의 길, 예인의 길 60년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예인의 몸짓은 절도가 있었고 다부지며 힘이 느껴졌다. 평생을 남사당의 상쇠로 관객들과 호흡하고 흥을 이끌어 온 삶의 이력이 몸에서 풍겨져 나왔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끝은 지긋하지만 여유로웠고, 팽과리를 두드리며 상모를 돌리는 모습에선 진한 연륜이 느껴졌다.

올해로 예인의 길, 유랑의 길 60년을 맞는 지운하(68) 명인. 그는 1955년 초등학교 1학년 때 풍물과 인연을 맺었다. 그의 아버지도 동네 풍물단의 상쇠였기에 풍물은 그에게 생활의 일부였다. 당시 지 명인이 살던 송의동은 풍물로 유명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아이들을 풍물명인으로 키우기 위해 선생님을 모셔올 정도였다. 1959년엔 서울의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팀으로 출전, 단체상과 개인 부문 전국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은 팽과리 소리를 들으면 그저 시끄럽다고 하지만, 나는 그 가락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어려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열두살에 남사당을 따라 나선 그다. 당시 남사당의 대가로 이름을 날리던 최성구 선생님을 따라 전국 유랑의 길로 나선 것이다. 남사당을 따라 전국의 장터를 전전하며 연회를 선보였다. 기량을 키우기 위해 상모돌리기, 풍물, 버나(접시돌리기), 살판(땅재주 넘기), 어름(외줄타기), 덧뵈기(탈놀음), 탈미(꼭두각시놀음) 등을 밤새워 연습했다. 인간대접 못 받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지만, 좋아하고, 가고 싶었던 예인

의 길이었다.

1969년 군 입대를 한 그는 베트남에 파병이 되어서도 ‘끼’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전투식량인 ‘시레이션’ 박스로 장구통을 만들고 판초우의로 양쪽 장구 가죽을 만들어 치는가 하면, 철모엔 구멍을 뚫어 상모를 달아 돌리는 등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기예를 떨쳐 버리지 못했다.

눈물과 애환으로 얼룩졌던 외길 인생에 희망의 빛이 찾아왔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천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남사당이 민중의 예술로, 민족문화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전수교육자가 됐고,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지도위원이 되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남사당놀이를 선보이고 우리가락을 해외에 알렸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남사당에서 팽과리 치고, 상모를 돌린다는 사실을 창피해서 주변에 얘기하지 못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민족예술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여기 거든요.”

그는 올해 유랑생활 60년, 예인 60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김덕수 사물놀이, 장사익, 이광수 등 내로라하는 국악 명인들과 함께하는 잔치다. 자신의 장기인 상모놀이를 비롯해 사물, 상쇠, 판굿 등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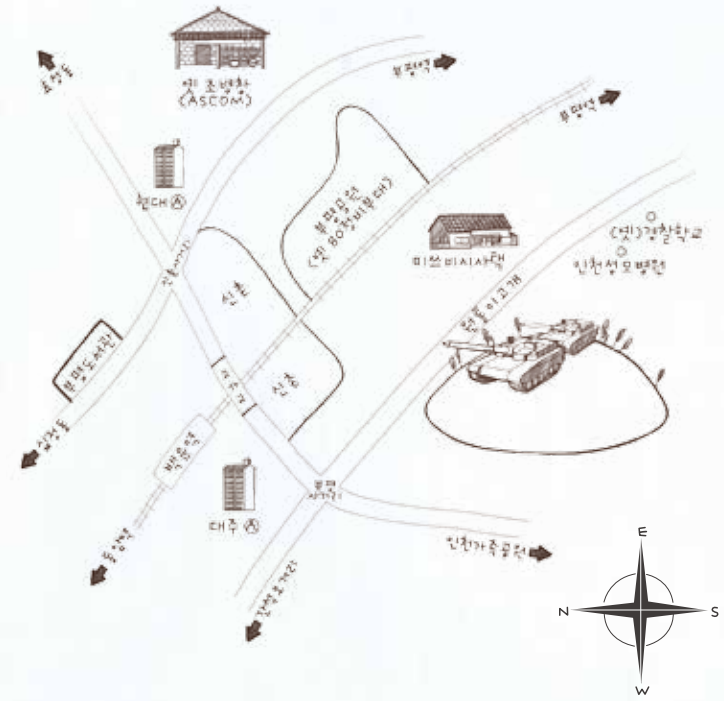


모진 ‘옹이’ 박힌 부평벌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발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인공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이나 드론(drone)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 호에서는 백운역 바로 옆 대주아파트 옥상에서 일본제국주의와 미군의 흔적이 남아 있는 부평공원과 신촌마을을 바라보았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① 조병창(造兵廠)·애스컴 ② 부평 신촌(新村·부평3동) ③ 부평공원(80 정비부대) ④ 미쓰비시 사택 ⑤ 원통이고개 전투 ⑥ 부평경찰학교



까치발을 든 지점 | 백운역 대주아파트 (부평구 십정동)

1970년을 전후해 경인철로를 따라 부평구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고개에 구름이 하얗게 끼면 비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해서 '백운(白雲)'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백운주택'이 되었고 이곳에 생긴 전철역은 백운역이 되었다. 그 역 바로 옆에 우뚝 솟은 22층 대주파크빌아파트는 옛 조병창 터 신촌마을을 조망하기에 더없이 좋다. 다행히 그날 오후 백운고개에 구름이 걷혔다.



계양산

현대아파트 단지

동아아파트 단지



우리 산하에 사연 없는 땅이 어디 한 평이라도 있을까.

부평은 굴곡진 근·현대사의 아픔을 품고 있는 웅이 같은 지역이다.

평화롭게 농사짓던 허허로운 벌판에 왜색풍이 몰아치더니 다시 양키 바람이 불어닥쳤다.

1939년 군수기지인 일본육군조병창이 부평에 들어섰고 광복 후 미군은 그 땅을 접수하고

남한 지역에 주둔한 미군들의 주요 보급기지인 미군수지원사령부(ASCOM)라는 간판을 단다.

얼마나 큰 터를 차지했으면 '시티'가 붙어 흔히 부평을 '에스컴시티'라고 불렀을까.

산곡동, 부평동, 청천동 일대에 넓게 자리 잡은 미군부대는 현재 부평구 행정구역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1 1960년대 에스컴 2 기지촌 신촌골목(부평역사박물관 소장) 3, 4 육군 80정비부대(부평공원 옛모습) 5, 6 미쓰비시 사택 7 원통이고개전투 8 부평 경찰학교

① 조병창(造兵廠) : 1939년 일제는 부평벌에 일본육군조병창을 설립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군의 전쟁 물자를 조달했던 조선 내의 대표적인 병기 공장이었다. 부평 조병창의 월간 생산량은 소총 4천 정, 총검 2만 정, 소총탄환 70만 발, 포탄 3만 발, 군도 2천 자루, 차량 200량 등에 달한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이곳에서는 선박 250척, 무전기 200조, 심지어 잠수정까지 만들어 냈다. 당시 이곳에는 수천 명을 헤아리는 군인과 군속들이 종사했다. 광복 후 이곳에 미국 에스컴부대가 주둔했다.

② 부평 신촌(新村·부평3동) : 미군 부대의 영향으로 기지촌 문화가 가장 먼저 자리 잡았던 곳이다. 1970년대 초까지 미군기지 정문 앞 대로변에는 '그린홀', '드림보트홀' 등 클럽들이 즐비했다. 대로변 뒤편에는 '양공주'라고 불리던 여성들이 거주하는 셋방이 몰려 있었다. 지금도 이곳에는 양공주들이 살던 부엌과 다락을 갖춘 단칸방 네 닻개가 길게 늘어서 주택이 일부 남아있다. 클럽이 있던 건물은 주로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 부평공원 : 1997년 말까지 육군80정비부대가 주둔하였던 터다. 군사용 막사 58동을 철거하고 4년여에 걸쳐 공원을 조성하였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전철을 타고 지나치면 거대한 군 막사들과 탱크, 군용 차량 등이 목격되었던 곳이다. 공원 조성 전 한때 독일 회사가 테마파크를 추진하려고 인천시와 협의하기도 했다.

④ 미쓰비시 사택 : 일제강점기 현 부평공원 자리에 '홍중(弘中)'이란 군수 공장이 있었다. 주변에 종업원 숙소가 수십 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부평 2동 일대를 '홍중(히로나카) 사택'이라고 불렀다. 이후 히로나카 공장이 미쓰비시(三菱)로 바뀌면서 사택 이름도 '미쓰비시 사택' 혹은 '삼릉 사택'으로 바뀌었다. 줄처럼 늘어서 있는 모양 때문에 흔히 '미쓰비시 줄사택'으로 불렸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미쓰비시 사택 87채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다. 부평구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의 첫 사업에 미쓰비시 줄사택이 선정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⑤ 원통이고개 전투 : 원통이 고개는 인천지하철 동수역에서 부평삼거리역에 이르는 길이다. 이곳은 6.25 전쟁 인천상륙작전 후 실제적인 첫 대규모 교전이 일어난 곳이다. '부평사에 따르면 인천상륙 3일째인 9월 17일 아침 6시경 북한군 보병부대와 인민군 전차 6대는 경인국도를 따라 부평 쪽에서 인천 방향으로 행군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 위 산속에 있는 미 해병대 진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마지막 전차가 원통이 고개를 직각으로 굽은 큰 길을 꺾어 돌려고 하는 순간 미군은 로켓포로 전차부대를 공격했다. 전차는 전부 파괴되었고 인민군 보병 250명 가운데 200명이 사살되었다.

⑥ 부평경찰학교 : 광복 직후 미군정은 1945년 종로구 세종로 미 대사관 자리에 '경찰관 강습소'를 설립했다. 조선경찰학교, 국립경찰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46년 8월 15일 국립경찰전문학교로 승격했다. 1955년 경찰학교는 현 부평6동 인천성모병원 옆으로 이전하며 부평시대를 열었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경찰관 양성을 하다가 경찰대학은 1984년 경기도 용인으로, 중앙경찰학교는 1986년 충주로 이전했다. 일제 말기에 박문여중학교(인천소화고등학교)가 교사로 사용하다가 징발되기도 했다.

※ 지난 4월호에 실린 (구)제물포구락부 설립에 대한 정정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는 크게 틀린 부분이 없는데 현재는 중구문화원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가 입주해 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과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div>2</div> <div>어린이 창작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div> <div>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2시, 5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div>	<div>어린이날 특집 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씽씽극장’</div> <div>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580-1135</div>	<div>3</div> <div>최현우매직콘서트 ‘THE BRAIN’</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1566-6551</div>	<div>우리가락 우리마당 ‘얼쑤’ 야외상설공연 판소리 명창 ‘박애리와 팝핀현준’</div> <div>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무료 ☎440-8086</div>	<div>2015 부평키즈페스티벌 ‘할락궁이의 모험’</div> <div>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평일 오전 11시 주말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2만원 ☎500-2000</div> <div></div>	<div>4</div> <div>어린이날 특집 뮤지컬 ‘피노키오와 매직쇼’</div> <div>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오후 4시 2만원 ☎010-2898-0014</div>	<div>5</div> <div>프린세스 공주 뮤지컬 쇼</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예매가 1만5천원 ☎348-3456</div>	<div>6·7·8</div> <div>청소년 성장극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div> <div>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0시, 오후 2시 무료 ☎453-5710</div>	
<div>8</div> <div>제8회효(孝)국악한마당</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초대 ☎881-5067</div>	<div>다종이 인형극 ‘이불꽃’</div> <div>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div>	<div>9</div> <div>베를라오페라단 25회 정기연주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R석 5만원, S석 2만원, 학생 1만원 ☎010-7338-1962</div>	<div>2015 부평키즈페스티벌 가족 발레 시리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div> <div>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1층 3만원, 2층 2만원 ☎500-2000</div> <div></div>	<div>10</div> <div>베를라오페라단 25회 정기연주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R석 5만원, S석 2만원, 학생 1만원 ☎010-7338-1962</div>	<div>우리가락 우리마당 ‘얼쑤’ 야외상설공연 ‘전통연희단’ 잔치마당</div> <div>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무료 ☎440-8086</div>	<div>2015 부평키즈페스티벌 가족 발레 시리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div> <div>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1층 3만원, 2층 2만원 ☎500-2000</div>	<div>12</div> <div>극단사다리의 코믹액션활극 ‘왜 왜 질문맨’</div> <div>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div>	
<div>13</div> <div>극단사다리의 코믹액션활극 ‘왜 왜 질문맨’</div> <div>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div>	<div>2015 사제동행음악회</div> <div>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4시 무료 ☎760-3426</div>	<div>14</div> <div>타악연희콘서트 ‘노 랫’</div> <div>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7-5996</div>	<div>코믹 오페라 ‘마님이 된 하녀’</div> <div>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브런치 타임), 11시(공연) 1만원 ☎580-1163</div>	<div>16</div> <div>인천드림스색스폰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010-3884-2896</div>	<div>조윤범 파워클래식 ‘음악사의 하이라이트’</div> <div>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4시 6천, 학생 무료 ☎760-3457</div>	<div>17</div> <div>우리가락 우리마당 ‘얼쑤’ 야외상설공연 판소리 명창과 인천판소리고법</div> <div>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무료 ☎440-8086</div>	<div>21</div> <div>인천시립합창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합창 풍경화(Choral Landscapes)& 환호하라 축복의 5월이여’</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1588-2341</div>	
<div>22</div> <div>포럼연극 ‘선인장... 꽃’</div> <div>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05-5995</div>	<div>23</div> <div>2015 세시봉 콘서트-인천 오후 3시, 7시</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1566-6551</div>	<div>인천시민을 위한 시민음악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010-6633-8900</div>	<div>가족 뮤지컬 ‘깨비깨비 난타’</div> <div>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2만원 ☎010-2898-0014</div>	<div>24</div> <div>우리가락 우리마당 ‘얼쑤’ 야외상설공연</div> <div>인천국악협회 공연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무료 ☎440-8086</div>	<div>26</div> <div>인천장로성가단 제20회정기연주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010-5385-1698</div>	<div>27</div> <div>우리마을 문화축제</div> <div>남동소래아트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53-5710</div>	<div>28</div> <div>브런치 콘서트 ‘음악으로 만나는 명작시리즈’</div> <div>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1만5천원 ☎ 500-2000</div> <div></div>	
<div>29</div> <div>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5회 정기연주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420-2781</div>	<div>발칙한 로맨스 – 인천</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3만원 ☎1544-390</div>	<div>30</div> <div>2015 인천음악제</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학생 5천원 ☎873-7772</div>	<div>칙한 로맨스 – 인천</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전석 3만원 ☎1544-3901</div>	<div>이 달의 展</div> <div>~5월 31일 2015 부평키즈페스티벌 전시 ‘Wonderland,Nerverland’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div> <div>~5월 31일 인천남구미술협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div> <div>5월 1일~5월 7일 제18회 인천교원사진연구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5월 1일~5월 10일 단각의 어울림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기획전시실</div> <div>5월 6일~5월 10일 행복나눔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div> <div>5월 8일~5월 14일 한국전통공예 산업진흥회 인천지회 회원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div> <div>5월 8일~5월 14일 해양경찰관이 하늘에서 바라본 우리의 바다 사진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div> <div>5월 8일~5월 14일 제17회 예유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div> <div>5월 8일~5월 14일 중국당대명가(이장장) 초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5월 13일~5월 24일 먹과 색의 만남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div> <div>5월 15일~5월 21일 2015년 인천미술한마당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div> <div>5월 22일~5월 28일 제8회 한·중 문인화 교류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div> <div>5월 22일~5월 28일 규방 ‘좋은사람들’ 제1회 보자기 전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div> <div>5월 22일~5월 28일 김영희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div> <div>5월 22일~5월 28일 제21회 예흔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5월 26일~5월 31일 인천예술고 미술과 18번째 학생 작품전시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div> <div>5월 30일~6월 3일 제51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인천예총문화회관(수봉공원)전시실</div>	<div>뮤지컬 ‘로미오&줄리엣’</div> <div>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30일(토) 오후 2시, 5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div>	<div>어버이날 특집,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div> <div>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A석 2만원 ☎580-1135</div>	<div>31</div> <div>발칙한 로맨스 – 인천</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전석 3만원 ☎1544-3901</div>	<div>우리가락 우리마당 ‘얼쑤’ 야외상설공연 ‘소울 소리판’창극과 판소리’</div> <div>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무료 ☎440-8086</div>



러시아 연출가 벨리코비치 발레리 로만노비치 연출!

인천시립극단이 창단 이래 최초로 러시아 연출가와 만난다. 러시아 공훈예술가인 벨리코비치 발레리 로만노비치는 70년대 후반에 모스크바 연극계에 나타난 중견으로, 그가 예술감독이자 상임연출가로 활동 중인 유고자파드 극장은 러시아 문화 위원회를 통해 국립 극장 칭호를 얻었다. 인천시립극단과 발레리가 선택한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전이자 그동안 뮤지컬, 영화 등 수많은 콘텐츠로 제작되어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출,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로미오와 줄리엣'

일시 5월 9일(토)~17일(일)
화·목 저녁 7시 30분 / 수·금 오후 3시 / 토·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3만원, R석 2만원
문의 1588-2341

기분 좋은 아일랜드 여행, 아이리시 포크밴드 '바드'

전석 1만5천원이라는 기분좋은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가 매력인 '커피 콘서트'의 5월 무대는 춤추는 바람을 따라 노래하는 여행자, 아이리시 포크 밴드 '바드'와 떠나는 기분 좋은 아일랜드 여행으로 꾸며진다.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란 뜻의 이름처럼 아일랜드의 전통음악과 서정적인 포크의 감수성을 결합한 사운드로 사색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음악을 선사한다. 산과 강,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져 에메랄드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전원의 나라, 아일랜드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커피콘서트V '바드와 함께 떠나는 아일랜드 여행'

일시 5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1만5천원
문의 1588-2341



모든 음악은 한 음, 한 화성, 찰나의 영감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실내악시리즈, 그 첫 번째 음악회는 음악용어 '크레센도'를 주제로 한다. '점점 세계'라는 단어의 이미지에 걸맞게 한 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솔로, 듀엣, 트리오... 이후 협주곡과 교향곡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대되는 악기 편성을 펼쳐 보인다. 관객들은 귀와 눈으로 직접 음악이 '크레센도' 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피아노 솔로곡인 스카를라티의 '피아노 소나타 d단조 K9',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듀오를 감상할 수 있는 빌라-로보스의 '플루트와 클라리넷을 위한 소로스 2번 A.197', 폴랑크의 '피아노와 목관 오중주를 위한 6중주 FB.100'등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을 만끽할 수 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I 'Cresendo-크레센도'

일정 5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음악 통해 전하는 호흡과 온기, 싱어송라이터 최고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브랜드 공연 '밴드 데이'는 매력적인 밴드들의 음악을 작은 소공연장에서 가깝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다. 소박한 어쿠스틱 사운드와 어우러진 특별한 목소리, 노래에 담긴 진심 어린 감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안겨주는 최고은은 기타 한 대를 무기 삼아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이다. 2010년 첫 미니앨범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그녀는 독일, 일본, 영국 등 국경을 초월한 활동으로 근래 등장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중 가장 돋보이는 이름이 되었다. 사랑, 꿈, 청춘 등 흔한 주제의 노래들을 풍부한 감성과 서정적인 목소리로 깊이 있게 표현해내는 최고은. 건반과 기타를 아우르며 봄날, 특별한 감성충전의 시간을 약속한다.

밴드데이13, 최고은

일시 5월 22일(금) 오후 8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1588-2341



아외예술마당 '황금토끼'

일정 5월 1일~10월 2일(매주 금,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외공연장
관람료 무료
문의 420-2051, 420-2743

우리가락 우리마당 아외상설공연 '열쑈'

일정 5월 3일~8월 2일(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아외공연장
관람료 무료
문의 440-8086

주말마다 저녁이 즐거워진다!

한낮의 날씨가 제법 덥다. 오히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불금과 여유로운 주말 저녁, 가족들과 흥겨운 공연을 편안하게 즐겨보면 어떨까?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외공연장에서는 '황금토끼'가 관객들의 흥을 돋아준다.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끼 있는 무대'의 줄임말인 '황금토끼'는 즐거운 공연 관람으로 여유롭게 주말을 시작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열린 무대이다. '황금토끼'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저녁노을이 예쁘게 물드는 아외공연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금요일 저녁에는 클래식, 월드뮤직, 타악, 국악, 아린이 연극, 무용 등 매주 다른 테마의 공연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장단, 우리 춤사위로 풀어내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신명나는 몸짓과 흥미진진한 인천시립극단의 아외극, 귀와 마음을 배부르게 채우는 인천시립합창단 노랫소리, 가슴까지 시원한 인천시립교향악단의 브라스 향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복장과 형식, 관람료에 구애받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뜨거운 감동과 열정적인 무대를 만끽할 수 있는 아외예술마당 '황금토끼'는 올해도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적인 무대로 새로운 감동을 줄 것이다. 이외에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공연과 우리가락 우리마당을 흥겨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열쑈' 아외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문화 정보 '모아 모아' '아이~큐'가 한 번에 보여 드려요

인천에는 많은 문화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과 열정이 녹아든 기획공연, 전시, 행사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떠다니는 정보 중에 한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눈에,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흩어진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공연, 전시 행사, 체험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인천에 어떤 시설과 단체가 있는지 모두 모았습니다. 이젠 '아이~큐'앱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아이~큐'에서는 인천지역 공연장·전시장·도서관·박물관·영화관 등 730여 개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행사·공연·전시 정보는 물론, 할인 티켓 이벤트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천문화' 검색 후, '아이큐' 앱 다운로드





‘인천! 국회 상륙작전’

지자체 최초로 국회에서 지역 홍보



우리 시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홍일표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우리는 오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인천의 가치와 무한 잠재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에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은 우리의 비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 국회 상륙작전’의 하나로, 국회에서 인천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잠재적인 가능성을 홍보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국회·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국회에서 지역을 알리고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 것은 우리 시가 처음이다. 이날 서해5도어민회와 서해아라뱃길정책추진단은 인천의 가치 및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서해5도 어선 3척으로 어민 대표들과 수산물을 싣고 인천 앞바다와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한강 여의도 임시선착장에 입항했다.

이들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라 인천 지역 어민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 남북한 교전 가

능성이 높은 서해5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해5도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정비해줄 것과, 이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개발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공식 개막한 ‘인천! 국회 상륙작전’ 행사는 22일까지 국회에서 다양하게 열렸다. 인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기획전과 국제행사 부스 운영, 천혜의 관광자원인 섬 홍보전, 인천 현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이 진행됐으며, 네일아트 무료 체험 행사, 지역특산물 시식·판매·전시, 기념품 무료 증정 등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문의 인천시 서울사무소 ☎440-8106

행복한 마무리를 미리 생각해보는 체험



우리 시는 지난 달 24일 인천가족공원에서 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하늘소풍나들이’ 행사를 열었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경험하는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노인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죽기 전 꼭 하고 싶은 일을 적는 버킷리스트 작성, 유연장 작성, 입관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늘푸른잔디장, 솔향기 정원수목장, 봉안당 현장견학과 장례문화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인천가족공원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1회 하늘소풍나들이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노인종합문화회관 ☎457-5382

아라뱃길에 버스가 풍덩?



국내 최초의 수륙양용 버스가 지난달 21일 경인아라뱃길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날 버스는 아라뱃길 여객터미널을 출발, 북인천 지하철도까지 육로로 왕복 운행했다. 이어 여객터미널 전용 선착장 주변 아라뱃길을 순회하며 총 50여 분간 운행됐다. 이 버스는 육로에서 최고 시속 140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뱃길에서는 10노트(약 18.5km)까지 낼 수 있다. 또 비상 시 승객 안전을 위한 장치도 갖추고 있다. 사업자인 아쿠아관광코리아는 이달 15일부터 수륙양용 버스 2대를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버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문의 (주)아쿠아관광코리아 ☎747-3355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은 어린이를 위한 창작·놀이 공간을 시민에 개방한다. 개방 공간은 소규모 공작·창작이 가능한 ‘플랫폼 아트랩’, 아동도서와 블록 놀이 등 장난감이 마련된 ‘플랫폼 키즈 북정글’로 매일 오후 1~6시 개방된다. 아트랩은 만 4~13세 어린이, 북정글은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 동반 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아트플랫폼 ☎760-1003

아트플랫폼 창작·놀이 공간, 어린이에 개방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에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 세 곳의 이름이 확정됐다. 시는 서구 연희동 제1문화공원의 청라1도서관은 ‘청라국제도서관’으로, 서구 경서동 청라중앙호수공원의 청라2도서관은 ‘청라호수도서관’으로, 영종하늘도시 17호 공원의 도서관은 ‘영종하늘도서관’으로 이름 지었다.

시는 지난 2~3월 도서관 명칭을 공모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역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도서관 명칭을 정했다.

문의 미추홀도서관 ☎440-6665

우리 시는 시가 선정한 우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업소 방문과 현지 조사를 거쳐 객석·조리장·화장실·종사자 위생관리 등 55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인천 우수 음식점 1천200곳 중 400곳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시 위생안전과 ☎440-2764

인천 청라·영종 도서관 세 곳 명칭 확정

우수 음식점에 위생등급 매겨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홍보관에서 ‘희망장날’을 운영한다.

지난달 21일부터 23일 열린 희망장날에는 글로벌교육공동체·기쁨떡집·동그라미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체 생산한 농산물·공예품·생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호응을 얻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희망장날을 정례화함으로써 지하상가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25-3300

‘희망장날’이 매달 열려요~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 열렸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가 지난달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년간 대장정을 시작했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5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유네스코·국제출판협회·국제도서관협회 등 해외 인사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책의 수도 개막 주간인 지난달 22~24일에는 역사탐방, 작가와 대화, 전시·체험 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개막 주간이 끝나도 책의 수도 행사는 내년 4월 22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10월 30일~11월 29일 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이 있다. 시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금속활자·대장경·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을 임차해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11~15일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제1회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 열린다. 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와 공동으로 아동 교육 분야에 IT를 접목, 차별화된 국제도서전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서대전(9월), 디지털북페어 코리아(11월)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책의 수도 지정을 계기로 도서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Books For All)이라는 비전과 ‘읽어요, 그럼 보여요’ 슬로건을 내세운 책의 수도 행사는 산업도시로만 인식돼 온 인천의 문화적·인문학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세계 책의 수도를 지정하고 있다. 우리 시는 세계 열다섯 번째, 아시아 세 번째, 우리나라 도시 최초로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됐다.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08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접수

우리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육성하기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2015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현판 및 선정서를 수여하고, 작년까지 최대 5억원이었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올해는 최대 8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이차보전금 2% 지원, 생산제품 판로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440-4255

인천 아시어드주경기장 투어프로그램 운영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과 육상경기 장소로 사용한 서구 아시어드주경기장의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투어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투어프로그램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1일 2회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운영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관람 코스에는 VIP회원실, 기자회견장, 스포츠 볼 전시관, 육상트랙, 시상대, 포토존, 체험장 등을 포함했다.

체험장에서는 올림픽 종목, 장애인 경기 등 다양한 경기종목에 대한 해설을 듣고 경기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유치원 초·중·고교의 현장학습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문의 인천시시설관리공단 ☎454-2025

오는 10월 6월 송도에서 열리는 골프대항전 ‘2015 프레지던츠컵’ 조직위원회가 지난달 17일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5 프레지던츠컵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직위원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조직위원들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프레지던츠컵은 유럽을 제외한 각국 골퍼들이 참가하는 ‘인터내셔널팀’과 미국팀의 대항전이다. 올해 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프레지던츠컵 명예 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문의 시 체육진흥과 ☎440-1744

2015 프레지던츠컵 조직위 출범



우리 시는 주안초등학교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학교 부지에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에 있는 주안초교를 주안2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이전·재배치하기 위한 시의 계획에 따라 남구청과 시교육청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남구는 2017년 2월까지 46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축해 공급하고, 시교육청은 주안초교 부지를 남구청에 제공,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주안초교가 이전하면 기존 부지에는 SMC개발(주) 주도로 800병상 규모의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문의 시 도시재생정책관실 ☎440-4463

재미동포들의 고국 내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송도국제도시 재미동포타운이 이달 착공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재미동포타운 사업시행사인 SAT(송도아메리칸타운)가 지난달 23일 우선협상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이달 안으로 사업약정을 맺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재미 동포들의 고국 내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 830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과 상업·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453-7142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2015년 식중독 예방관리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2014년 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최우선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보건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품매개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식품미생물 관련 유해물질 관리 사업, 유통식품, 식품접객업소 및 학교급식소 조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인천보건환경연구원 ☎440-5442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 예방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맑고 깨끗한 인천 위해 장수천 정비”

■ 오홍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인천시민들의 쉼터인 장수천을 잘 정비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7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오홍철 위원장은 의정활동 기간 중 장수천 길을 꼭 정비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300만 인천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정말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 때문이다.

재선 의원인 오 위원장은 올해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정방향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다짐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정책을 생산하고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 업무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하나로 모으고, 여야 의원들 간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오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깨끗한 의회,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이었다.

오 위원장은 또,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입과 지출 구조 모두를 점검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



가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정리할 방침이다. 또 시가 올해부터 인천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정 방향을 세웠다.

오 위원장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장애인단체, 고아원 등 어린이시설을 오랫동안 후원해왔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온 것이다. 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시의회에 입성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래서 그의 의정활동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발의, 현장시찰 등에서 더욱 빛을 내고 있다.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인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천대공원을 가장 좋아합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틈나는 대로 가서 걷고 있습니다. 인천의 허파 같은 곳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겁거나 기억나는 일은 무엇인지요?
집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경우, 가볼만한 곳 세 곳을 추천한다면?

소래포구, 차이나타운, 인천대공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소래포구는 사람 냄새 나는 재래시장으로, 차이나타운은 이국적인 볼거리와 먹거리, 인천대공원은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과 숲이 자랑거리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최근 본 영화와 감동적인 장면을 소개 바랍니다.
국민영화 '명량'과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봤습니다. 특히 노부부의 스토리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애장품과 그 애장품에 얹힌 사연을 말씀해주세요.

부모님과 어렸을 때 떨어져 살아서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고맙고 애뜻한 분입니다. 할머니의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창곡은 무엇인지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숙부님 두 분이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인 올해 소망은?
노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합니다.

“시민의 어려움 더는 의정활동에 방점”

■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고 계속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주요부서와 소통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모색해 재정건전화에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인천시가 인천의 가치와 정체성 발굴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고유한 것을 찾아 관광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즉 인천의 가치라 할 수 있는 섬, 바다, 공항 등을 관광과 잘 연결하면 좋은 관광소재가 되고 이는 곧 인천의 미래 먹거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차 위원장은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평구 부내초등학교 학교강당 신축, 먼지나는 교실에서 급식이 이뤄진 학교의 급식시설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했다. 또 군구 재정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해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도 앞장섰다.

재선의원인 차 위원장은 초선의원 시절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았다. 시정과 인천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은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래서 재선이 되어 맡은 상임위원장의 활동영역은 깊고도 넓다. 세심한 배려와 고민한 흔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인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을왕리를 좋아합니다. 인천에서도 파란 바다를 볼 수 있어 멀리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낙조도 아름다워 굉장히 느낌이 좋은 바닷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겁거나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87년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틀에 박힌 생활을 깨고 사회를 처음으로 다르게 느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경우, 세 곳을 추천한다면 어디를 강추하시겠습니까?

을왕리, 송도국제도시, 부평지하상가입니다. 을왕리는 바다가 너무 좋아서,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의 성장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부평지하상가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정도로 점포 수도 많지만 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추천합니다.

체력관리를 위해 특별히 하는 운동이 있는지요?

탁구를 가끔칩니다. 초등학교 시절 탁구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잘 쳤습니다.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하시나요?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며 쉬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아닌 개인으로 올해의 소원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나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를 비롯해 부모님,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셰프(Chef)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주안역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쌀 20kg 20포를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기증하고 200여 어르신을 위한 배식봉사를 2시간여 동안 실시했다.

노경수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구슬땀을 흘리며 배식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우리 이웃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여건만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땀 흘리며 봉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노경수 의장은 예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던 어르신들이 오늘 이렇게 노상에서 식사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며, 격동기를 겪었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8개월 활동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희)는 지난달 21(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 관계부서로부터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위는 그간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시민 토론회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 시·도 비교사찰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 안전대책 마련과 애로사항 해결 등 특위구성 취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원도심 노후시설 학교 현지시찰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최용덕 위원장)는 지난달 10일 원도심 노후시설 학교인 선화여중(남구 도화동 소재)을 방문했다. 선화여중은 1969년 개교로 교사동이 노후화했으며, 2015년 들어 교사동 후면의 외벽이 심하게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전 테이프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교사동 후면 외벽의 보수공사를 위해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로 4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하계방학 기간에 시행할 예정이다.

작은 도서관 지원 모금활동 적극 동참

인천광역시의회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독서생활을 저변으로 확대하고 이용 시민들의 정보 욕구 충족 서비스를 늘리고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지원 모금활동'에 전체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노경수 의장은 지난달 21일에 직접 전화(ARS)를 걸어 작은 도서관 지원 모금활동에 참여하면서 “인천시민 모두가 마음껏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여 '책 읽는 문화의 생활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작은 도서관 지원 모금활동으로 모인 돈은 인천시내 자립 능력이 약한 우수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구입,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리모델링 등에 쓸 예정이다.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남동구 논현동 소재 인천동방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 제129회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언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해왔던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잠시 동안 시의원이 되어, 사전에 선정한 가상의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실제 조례제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준비된 상임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와 본회의를 통한 조례안 의결 등을 체험했다.

본회의 인건심의를 앞서 학생들은 욕설 사용 금지방안, 게임 셋 다운제 완화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맛벌이 가정 자녀 돌봄 서비스 활성화 및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아울러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유네스코 지정에 발맞추어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방안으로 선정된 학교도서관 문화책 비치 조례안과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례안에 대한 열띤 질의와 찬반 토론도 있었다. “시의회에 처음 와서 신기했고, 시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된 소중한 체험을 통해 시의회에 관심 갖게 되었다.”며 참가 학생들은 의정체험을 한 것에 대해 만족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산인 접견

인천광역시의회 노경수 의장이 지난달 오전 권경상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산인을 접견하여 청산단 출범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 환담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정관에 의거 2015년 3월 31일자로 의결된 법인 해산결의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청산단을 이끌고 있는 권경상 청산인은 “지난 8년간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저비용 고효율 대회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의회에 감사하며, 청산인으로 서 마무리를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수 의장은 이 자리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해외 언론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전문가들도 성공한 대회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저비용 고효율 대회의 좋은 모델로 남을 수 있도록 마무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금용)는 지난달 20일 루원시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단으로부터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이루어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 정상화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방문현장에서 지역구 최성정 의원은 “양측의 정상화 합의내용과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향후 정상화를 위한 양측의 이해 조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대표적인 현안사업으로, 부동산 침체와 양측의 재정난 등으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으로 최근 양측이 사업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 루원시티 현장 방문





노래자랑 출연 희망자 신청하시길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통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뭘 수 있으면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_편집자 주

정리 유동현 본지 편집장

다산모 표창, 12명에게 자녀 123명

인천시 관할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다산모(多産母)를 조사한 바 11남매를 낳은 어머니가 세 분 이고 10남매를 낳은 어머니가 아홉 분으로 이 열 두 분 어머니가 낳은 자녀의 수는 123명으로 남자가 79명, 여자 44명이다. (1953년 5월 20일자)

서머타임 실시, 빨라지는 출근

지난 4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5월 5일 0시부터 9월 8일 24시까지 서머타임을 실시 키로 하였다. 이번 서머타임 실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개정 실시키로 한 공무원의 시무 시간은 5월 4일까지 종전과 같이 시무하며 5월 5일부터는 서머타임에 의한 상오 9시부터 하오 17시까지 시 무하고 토요일만 하오 1시까지 시무키로 하였다고 한다. (1955년 5월 2일자)

배다리 철문 확장 공사

인천의 요충지에 놓여 있는 배다리 시장 입구의 폭 8미터의 철로문이 현재의 약 세 배나 되는 25미터의 폭으로 확장되어 번잡한 교통난의 완화는 물론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미연 방지될 것

으로 보인다. 동 공사는 3개월간을 예정하고 있 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9월, 10월안 으로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사를 실시하자 면 확장 공사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창영파출소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의 26동의 무허가 판잣집 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 부득이 지 난 27일 철거 계고서를 일제히 발부했다. (1955년 5월 30일자)

나무를 꺾지 마시오

상춘지절을 맞이하여 시내 각 학교에서는 야외 소풍, 등산을 목적으로 만국공원, 송도, 수봉산을 비롯한 기타 사방 시공지, 식재 조림지에 함부로 들어가 사방 시설물의 파괴는 물론 어린 나무를 밟아 손상을 입히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에 비추어 인천시에서는 시내 각 급 학교에 통첩하여 애림사상을 널리 계몽하고 차후로는 소풍을 간다 할지라도 사방 시설 유수 식재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 주의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요즈음 꽃놀이를 즐기는 상춘객들도 각별 주의하여 애림녹화에 더욱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1956년 5월 2일자)

네 명의 우량아 표창

인천시에서는 지난 8일 상오 10시 시 회의실에서 ‘어린이 애호주간’의 한 행사로서 지난 7일 시내 100여 명의 건아(健兒)를 심사하여 심사에 합격한 우량아 네 명에 대한 표창장 및 기념품(은수저) 수여식이 어린이 보호자와 시청 직원 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인천시 의사회 부회장 이중설 씨는 “오늘 영예의 표창을 받은 네 명의 우량아는 국제 수준에 도달할만한 건강체였다”라는 요지의 어린이 심사 보고를 했다. 최 우량아는 이형원(남, 10개월 8일) 우 우량아는 박예선(여, 11개월 26일) 양 우량아는 유원학(남, 9개월 27일) 김학렬(남, 7개월 26일)이다. 수상 어린이들의 앞날의 건강을 축복하는 신흥초등학교 어린이 밴드의 주악이 끝나면서 수여식을 마쳤다. (1956년 5월 9일자)

수족관 설치?

인천에 수족관을 설치하고자 지난 19일 해무청 수산국 과장이 내인하여 동 수족관 부지를 실시 조사한 바 있다. 이날 김정렬 시장을 비롯해 관계 기관장들이 송도 해안지대를 시찰하고 기본 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나 금년도 예산에 계정될 것으로 보아 인천시민들이 동 수족관 설치를 지지한다면 곧 설치에 착수하리라 한다. (1956년 5월 23일자)



1969년 인천시 우량아로 선발된 건아들

노래자랑반 인천 공연

서울 중앙방송국(HLKA)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노래자랑과 스무고개’반이 오는 31일 내인하여 시내 문화극장에서 주간 인천사 주최로 하오 3시와 6시에 걸쳐 인천 시민 여러분에게 공개 하리라 한다. 이번 ‘노래자랑과 스무고개’반이 내인하는 것은 이번 이 처음으로 인기가 상당히 고조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 동 노래자랑에 출연코자 하는 자는 오는 26일까지 주간 인천사 문예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한다. (1956년 5월 23일자)

시민극장 전소(全燒)

24일 상오 4시경 시내 화수동 287번지 시민극장 옆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삼시간에 동 극장을 화염으로 휩싸이게 하여 인근 주민들까지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한미소방대원들이 민활한 소화 작업으로 127분에 달하는 동 극장 건물만 소실하고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되었는데 화재는 시민극장 옆 자동차 창고에서부터 발화하였다고 한다. (1956년 5월 30일자)

<div> <div> 仁川市松峽洞一番地</div> <div>大韓重工業公社</div> <div>電話 四三〇番</div> </div> <div> <div>仁川市綠峽洞一番地</div> <div>卧龍酒精工業社</div> <div>電話 二二二番</div> </div> <div> <div>仁川市新興洞一街入番地</div> <div>京仁飲料株式會社 仁川店</div> <div>電話 二七五番</div> </div>

1955년 5월 2일자에 실린 기업 광고. 대한중공업(현 현대제철), 와룡주정공업사, 인천성냥공업사, 경인합동음료주식회사 등 옛날 인천의 주력 기업체들의 이름이 담겨 있다.

인천경제청 홍보관 I-Vision 개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홍보관이 지난 3월 2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홍보관은 서해바다와 송도국제도시 전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어 일반인과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찾는 IFEZ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 I-Vision 센터(IFEZ 홍보관)

위치 G타워 33층/ 1천269m²

주요시설 영상관, 전시체험관, 전망 및 휴게공간 등

운영시간 평일 오전 9~20시, 주말·공휴일 오전 10~18시

※ 설, 추석 명절은 사전 공지 후 휴관

관람유형 도슨트 투어(평일 오전 10시, 14시, 16시) 및 자유관람

이용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 전화예약 : 453-7881~5(경제청 공보문화관 홍보관운영팀)

– 인터넷예약 : IFEZ 홈페이지 → 홍보자료 → IFEZ홍보관 방문예약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기관 슬로건 공모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인천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부합하는 명칭과 이미지 강화를 위한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기간 5월 1일 (월)~12일 (화)

접수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인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www.damoa.incheon.kr)

이메일 slogan@damoa.incheon.kr

공모방향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지향하는 인천평생교육의 허브역할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슬로건

시상내역	
부분(인원)	시상
대상(1명)	상금 30만원
우수상(1명)	상금 20만원
장려상(2명)	상금 10만원

제출양식

– 작품규격 : 10자 이내(국문 기준)의 슬로건, 부연설명 포함하여 지정된 양식에 맞춰 제출

– 제출서류 : 공모전 신청 양식(별첨 다운로드) 제출
국·영문 제한 없음, 1인당 세 작품까지 제출 가능

문의 568-9768

사진공간 배다리 3주년 기념전시

사진공간 배다리에서는 개관 3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사진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람 바랍니다.

전시제목 한·호 사진가 초대전

일시 5월 1~27일

장소 사진공간 배다리

참여작가

– 한국 : 문상욱, 김태근, 방동환, 남택운

– 호주 : David Manley(호주), Denis Beaubois(호주),
Jinhyo Kang(한국), Roy Subum Lee(한국), Susan Bui(중국)

문의 070-4142-0897

‘울목도서관 북스타트’ 신청하세요

울목도서관은 태어나는 아가들의 평생 친구가 될 책을 전달하는 ‘북스타트 BookStart’를 운영합니다. 아가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도서관이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기간 4월 29일~11월 25일

운영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오후 5시

장소 울목도서관 별관 어린이자료실

대상 출생~35개월 아가 및 부모

참여방법 어린이자료실 데스크 문의, 유선, 방문 접수 등

참가비 무료

문의 770-3808

종합민원상담센터 무료 전문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의 접수·상담 외에 변호사 등 9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주요기능

–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의 접수·상담

– 다양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변호사 등 무료 전문상담 제공

무료전문상담 현황

• 상담 분야

– 방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 전화상담 :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 상담 시간 : 오전 9:30~12:00, 오후 14:00~17:30

문의 국번없이 110

2015 인천 국제 부동산 투자박람회

인천의 개발사업을 포함한 유망 글로벌 투자상품과 전세계 개발·금융업계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부동산 투자 마켓이 올 6월 송도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투자기회와 지식 교류의 장(場)이 될 본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6월 12~14일

장소 송도 컨벤시아

주요 프로그램 (상세 일정은 별도 문의)

– 전시회 : 국가별 개발 프로젝트 전시관 운영

– 컨퍼런스, 토론회 : 부동산 개발 투자자 및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및 공개토론회

– 개발사업 프로젝트 쇼케이스,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자·유치기관 및 충청 상담 등

전시(행사)규모 10개국 80개사 80개 부스

국내외 방문객 2만5천명(외국인 3천명 포함)

초청 투자자 내국인 200명, 외국인 100명

문의 02-360-4260~1(4076), 인천시 투자유치담당관실 440-3297~9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습니다

꿈드림은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설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을 시작하거나 성공적으로 사회에 집입하도록 돕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천대학교 대학탐방

• 일시 : 5월 14일(목) 정오 12시~오후 4시

• 장소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 대상 : 학업중단 청소년

• 내용 : 인천대학교 안내 및 송도캠퍼스 탐방

• 문의 : 721-2329, 010-9736-1388

검정고시 준비 스마트교실

• 일시 : 5월 1일(금)~31일(일) 오후 4~6시

• 장소 :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습실

• 대상 : 8월 검정고시 대비

• 내용 :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1:1멘토링, 기초학습반, 인터넷강의

• 문의 : 721-2327, 010-9736-1388

미추홀문화회관 여름강좌 엽니다

미추홀문화회관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제56기 여름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부담 없고 유익한 무료특별 기획강좌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1일 무료특강, 단기특강들이 진행됩니다.

강좌기간 6월 1일~8월 22일(3개월)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접수기간 4월 27일~6월5일

장소 미추홀문화회관 – (구)인천여고

대상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문의전화 765-0220, 0250, 홈페이지 www.mchart.co.kr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3개월 과정)

성인

– 서예 초급(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최종영)

– 수필 창작과 문학의 이해(인천대 객원교수 김준기)

– 한국무용(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박영숙)

– 성인 영어회화 왕초보반(영어회화 전문강사 솔로몬정)

– 성악 교실(성악가 조외숙)

– 성인 중국어회화 생초보반(중국어회화 전문강사 김영애)

– 드로잉 기초부터 완성(서양화가 라선)

– 요가(국제요가아카데미 원장 장은영)

– 입문! 서양화&유화교실(홍익대 회화과 총동문회 이사 김형기)

– 오키나와(오키나와 전문강사 백현숙)

신나고 활기찬 야외수업

어린이 골프교실

• 대상 : 초등학교생 이상

• 레슨비 : 3개월 15만원

• 일시 : 화, 목, 토(주3회)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 개별레슨

• 문의 : 765-0250

맞춤형 월별 단기특강&토요특강

천연 아로마 DIY(단기특강)

• 6월 : 6월 3~24일 석고방향제, 탈모예방 쿨삼푸, 자외선차단제, 천연해충퇴치제

• 7월 : 7월 1~22일 아로마디퓨저, 쉐베리클린저, 레몬룸스프레이, 소이캔들

• 8월 : 8월 5~26일 천연 미백스킨, 천연 미백에센스, 미백수분크림, 땀띠 진정 미스트

• 핑크버블썸&캔들 교육원장 최미영

• 수강료 : 월 2만원(재료비 별도)

• 시간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경제회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제 회생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 신청자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프리워크아웃

• 신청자격 :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분

•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면 무료 상담. 본인의 신용등급을 알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도 발급
※ 상담소 위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 인천광역시 시민금융지원센터 상담 : 매주 수요일 시청 본관3층 생활경제과에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440-4228~4229

• 전화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우리마을 문화축제-키즈데이

남동소래아트홀에서는 5월을 맞아 어린이들 위한 재미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일시 5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남동소래아트홀 소공연장(스튜디오오제비)

관람료 무료(전화예약. 당일 선착순 입장)

연령 전 연령

내용 문화를 사랑하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문화축제. 남동소래아트홀 상설프로그램으로 연간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

문의 453-5710

청소년 성장극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남동소래아트홀은 청소년 성장극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를 공연합니다.

일시 5월 6일(수)~5월 8일(금)

오전 10시, 오후 2시(시간 조정 가능)

장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대공연장)

연령 만 7세 이상

주최 남동구, (주)PMC Networks

내용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장극.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765-8880

아름다운 관광지로 '떠나세요'

정부에서는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5월에 봄 관광주년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가족여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간 5월 1일(금)~14일 (목), 14일간

주요내용

– 관광지 및 시설·숙박·교통 등 할인, 대표 프로그램 개발

– 휴가가 있는 관광주간 : 초·중·고 단기 방학·재량휴업 실시, 경제단체 동참

–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사전·기간 중 현장점검, 관광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관광주간' 프로그램

1. '내 마음의 섬표, 인천 섬'

2. 재미난 수레마켓 개항場, 아! 개항場

3.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4. 관광 홍보체험관 운영

5. 맛있는 공연 'BIBAP'과 함께하는 인천 중구 여행

6. 섬마을로 떠나는 우리 가족 소풍

7. 고려궁 성곽길 역사탐방

※ 자세한 정보 확인 itour.visitincheon.org(인천투어)

관광주간 할인 제공(할인쿠폰은 '인천투어'에서 출력 가능)

문의 440-4042

작은도서관 지원 모금 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사랑의 열매는 시민들의 독서생활화의 저변 확대와 우리 이웃들이 마음껏 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아질 바랍니다.

모집 기간 3월 30일~12월 31일

참여 방법

– 전화 : ARS 060-700-0332(한 통화 2천원 자동 기부)

– 계좌입금 : 신한은행 100-023-230734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천지회)

– 도서기부 : 신 책(구매하여 기부시 영수증 제출 필수)

※ 중고 서적 접수 불가

문의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456-3312)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440-3970)

※ 모든 기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ARS 제외)

한국춤, 통기타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부평아트센터가 한국춤, 통기타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한국춤, 통기타

프로그램 일시

– 한국춤 : 5월 19(화)~8월 27(목) 매주 화, 목

– 통기타 : 5월 16(토)~8월 29(토) 매주 토

모집기간 5월 1일(금)~13일(수)

참여방법 신청서 E-mail 및 방문 접수(부평아트센터 홈페이지 참조)

장소 부평아트센터

참여비 8만 5천원

참여대상 성인

문의 500-2073, www.bpart.kr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참여하세요

인천시는 이웃 간에 소통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2015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접수기간 4월 20일~5월 11일

교부처 군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접수처 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 부서

문의 – 시 주거환경정책과 마을정비팀 440-3483

– 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 부서 및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777-8200

'놀면서 배우는 전통문화와 예절' 체험

연수문화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절학교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상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일시 5월 30(토),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원인재 (문화재자료 제5호, 원인재역 1번 출구 50m)

수업내용 생활예절, 전통예절, 전통다도, 다식 만들기, 전통놀이 등

참가비 무료

접수기간 5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

문의 821-6229

'학산 실버마당예술단' 어르신 단원 모집

인천시 남구학산문화원은 송의1·3동의 마을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동네에서 공연할 '학산실버 마당예술단' 어르신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일정 5월 8일(금)까지

모집일정 60세 이상 어르신 20명, 남구주민

교육내용

– 시간 : 5월 13일~9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진행

– 장소 : 송의1·3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참가대상 60세 이상 송의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문의 866-3994

'우리 얼' 문화유산 발굴 국민제안 공모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통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한국을 넘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로 계승·발전 시키고자 '우리 얼' 문화유산 발굴 국민제안을 공모합니다.

공모명 '우리 얼' 문화유산 발굴 국민제안 공모

주최 문화재청

응모자격 누구나 참여가능(개인 또는 단체, 외국인)

응모방법 온라인 접수(havana@korea.kr)

※ 제출서류 : 공모제안 신청서, 저작권사전 사용 동의서

공모일정

– 접수 : 5월 1일~7월 20일

– 발표 : 8월 15일(예정),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문의 042-481-4819

찾아가는 경력단절 예방 맞춤 특강

인천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취업자의 직장적응력을 키우고 경쟁력 있는 직장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경력단절 예방 맞춤 특강을 운영합니다.

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100인 미만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 근무하고 여성친화 일촌협약을 맺은 업체

시간 업체당 1시간~2시간 이내, 근무시간 중

장소 업체별 회의실 등

내용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방법 신청 업체 직접 방문 교육, 주제별 강사를 통한 전문교육

문의 440-6526~6529, 6546~6548

세계교육포럼 나들이

5.19~22, 송도컨벤시아

오래 기다렸지?
1편에서 너무 뚝을 들인 것 같으니,
2차 EFA회의 장소를
빨리 공개할게.



짜잔!
바로 세네갈
다카르야~!

아하!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에서는 기존의 6대 목표를 개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한도 10년에서
15년으로 갱신했어.



그게 바로
2015년도야!

우아~
얼마 안 남았잖아!

2015년 세계교육포럼은
지난 15년간의 EFA 성과를 평가하고,
시대변화에 걸맞는 교육목표와 의제를
설정하는 엄청난 포럼이 될 거야!
그렇지? 맞지?



설레고 떨려요~

당연히 여기서 퀴즈가 나가겠지?
이번 3차 EFA 회의는 대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열리게 될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한 교육강국이 힌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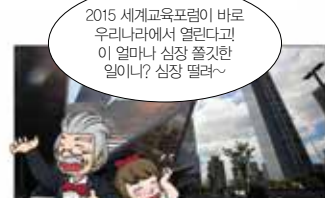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그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리셨겠지?



이번 3차 EFA 회의인 '2015 세계교육
포럼(World Education Forum)'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열린단!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 인천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이 얼마나 신장 풀기만한
일이니? 심장 떨려~

으응으응~



이번 회의는 향후 15년간
세계가 공유할 새로운 목표와
의제를 설정하는 전환점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역사적인 논의가
바로 우리나라, 인천에서
진행되는 거지~!



우리는 2015년 2월부터
포럼 준비기획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어.
안으로는 준비위원회와 국제교육협력포럼
등을 개최해 많은 이들에게
자문하고 의견을 들었지.

밖으로는 유네스코 본부와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한-유네스코 공동준비위원회'도
꾸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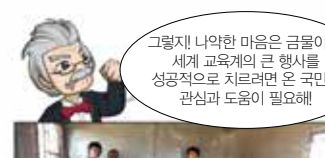


DO IT!!
MOVE! MOVE!



아는 것만 많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2015 세계교육포럼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걱정아구나...

그만 우세요. 뚝! 네???
우리 국민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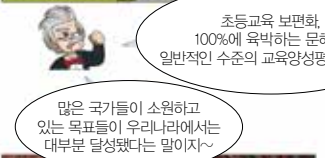
그렇지! 나약한 마음은 금물이다!
세계 교육계의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온 국민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



이제야
박사님 답네요!



전 세계인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어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십 년 만에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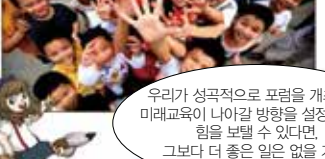
초등교육 보편화,
100%에 육박하는 문해율,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양성평등까지...



많은 국가들이 소원하고
있는 목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달성됐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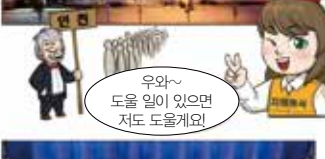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가 성공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힘을 보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야!



2015 세계교육포럼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야!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대표 등 전 세계 교육계 명사 1천500여 명이
대거 인천으로 모인단다.



우와~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도움게요!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지! 전 세계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될 거야!
정말 뿌듯하지?

모두를 위한 교육 EFS!
전 세계 교육계 최대 회의!



우리 모두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해요!



나도 초대장
써야지~!

※출처 : 2015 세계교육포럼(www.wef2015.go.kr)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장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역군들

1960년대 한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수많은 젊은이가 꿈을 찾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1969년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독일로 파견을 떠나며 '한강의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훗날 파독 간호사가 되어 남편의 뒤를 따랐지요. 힘들었지만 젊
은 날의 땀방울로 꿈을 이루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양전 남동구 하촌서로



1967년 어느 날, 친구들과 한 약속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1967년 12월 어느 토요일 오후, 인천선인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가까머리 친구들과 졸업 후에 꼭 만나자고 약
속하며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추억 한 장을 남겼습니다. 뒷
줄 가운데가 저입니다. 오늘 따라 친구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박성갑 서울시 관악구



20여 년 전, 월미도

1990년대, 유치원에 다닐 때 가족과
함께 월미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그 위에서 비상하는 갈매기의 힘찬 날
갯짓은 여전합니다. 사진 속 배경에 함께
찍힌 '직할시', '민주국민', '애국정신' 이
라는 단어가 그때 그 시절의 역사와 사회
상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김유나 전라북도 군산시



송도유원지에서 수건돌리기 하던 추억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송도유원지로 봄
소풍을 갔습니다. 오락 시간에 수건돌리기를 하며 즐겁게
놀았었지요. 아이들이 동글게 모여 앉은 원 밖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여학생이 바로 저랍니다.

박승희 남동구 구월로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내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실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 문의 : 440-8305

오늘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어떠세요

글 이호진 대인고등학교 1학년·인천시 청소년 웹진 ‘MOO’ 기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전 CEO 짐도널드도 임원회의 만큼이나 평소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조차,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지 미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의 식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을 확인하고 정을 더욱 두텁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특히 ‘가족 식사 3단계’에 맞춰서 식사를 할 때, 가족 간의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식사 3단계’는 유대인의 식사 습관에서 비롯된 말로, 유대인들은 ‘식사 전 차리기 →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기 → 식사 후 정리하기’ 세 단계에 걸쳐서 가족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아이들은 밥상에서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을 공경하게 됩니다. 가족 식사의 이점은 연구 결과로도 밝혀졌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약물중독 국립센터 연구진의 2013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알코올 섭취 비율은 40%, 흡연 비율은 5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족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A 학점을 받은 비율이 약 두 배 정도 높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청소년들은 가족 식사를 일주일에 며칠이나 할까요? 가까이에 있는 청소년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61명이 일주일에 4일 미만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식

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청소년들은 그들의 바쁜 일정을 꼽았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 늦은 시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과 밥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이 직장에서 집으로 늦게 돌아오시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중학교에 다닐 때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일이 많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루 일과가 바쁘게 돌아가면서부터는 가족과의 식사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가 줄자 가족 간의 대화도 줄고 서로 간에 조금 서먹서먹해지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가정의 달’ 오월입니다. 하루 동안 별말 없이 지내는 가족들이라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래도록 눈빛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함께 하는 시간이 더욱 윤택해 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어떠신가요?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오늘을 즐겨라(Carpe Diem)”
카르페 디엠(Carpe Diem)은 라틴어로 ‘오늘을 즐겨라’라는 뜻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던진 말로, 지금까지도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 구절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리고 일본일초 매순간을 즐기면서 살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건네 드릴 편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편배달부는 이 동네에 건네 줄 편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골목을 오르는 오늘 발걸음도 거의 일 년 만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받을 편지가 없어도 우편배달부가 집 앞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반갑습니다. 어깨의 낡은 우편낭처럼 열우물 산동네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 부평구 십정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